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충남시 여성in

Vol. 34



충남여성

충남여성이슈 2015
테마기획 | 마을과 여성
2015 충남인
현장 2015

충남여성정책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5 충남여성정책
라운드테이블
성과보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개요
2015년 사업
2016년 사업계획
언론에 비친 CWPDI

2015년, 여성들이 마을을 구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배우고,
함께 길을 걸으며 새로운 꿈을 꾸니다.
여성들의 변화가 마을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충남인여성in]이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Contents

002	발간메시지	안정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004	축하메시지	오배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Section 1 충남여성

005	2015 충남여성이슈 테마기획	마을과 여성 “여성이 마을을 구한다”
014	탐방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민들의 비빌 언덕, 여성농업인센터”
020	좌담	변화의 선봉장, 여성이장들 “마을에 부는 신선한 바람, 맑고 따뜻하여라”
028	사례	마을에서 노는 재미,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자”
034	특소다	청년여성들의 삶과 꿈 “지역에서 달리는 청춘들”
041	2015 충남인 ❶	서산풀뿌리여성연대
044	2015 충남인 ❷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윤인원 주무관
045	2015 충남인 ❸	천안다문화가정협의회 가메아마 유미교 총무
046	현장 2015 ❶	제1회 충남풀뿌리여성대회
048	현장 2015 ❷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
050	연구 2015	한 논문 하실래요?



Section 2 2015년 충남여성정책 성과보고

056	통계로 보는 2015년 충남여성의 삶
058	INSIDE CWPDI 2015 충남여성정책
060	라운드테이블 충남의 여성정책과 개발원
067	2015년 충남여성정책 성과보고



Section 3 CWPDI Annual Report 2015

090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요
094	CWPDI 사업
102	CWPDI 서비스
106	언론에 비친 CWPDI
116	CWPDI 사람들



충남 여성in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간 소식지

안녕하세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안정선입니다.

2015년을 열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한 충남을 통해 행복한 도민의 삶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한 해를 접으며 이 지면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2015년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16년 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다듬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도출한 첫해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정책연구와 교육사업을 하고자 끊임없이 성찰과 노력을 한 점입니다. 막상 한해의 결과물을 여러분 앞에 내놓으며 과연 흡족하다는 평가와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채워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책대상으로 머물던 충남의 여성들이 정책의 제안자이자 참여자로 더 나아가 평가자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풍부하게 채워주신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되돌아보면 여성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함으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첫 장을 연 3월, 본원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동창회는 참여자들의 기획을 바탕으로 “풀뿌리여성대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여성, 마을을 구하다”라는 슬로건은 충남 여성들이 삶의 뿌리인 마을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진 학습에 대한 열기는 여성적 관점의 “풀뿌리 자치학교” 8주 과정을 메르스의 공포와 한 여름의 폭염도 이겨내며 완주해내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올 한해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다잡는 데 여러분들이 격려와 힘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늘 다짐하고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 연구자의 관점에 머무는 것로부터 도민의 삶의 현장과 살아가는 진행형인 역사를 담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깨우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들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2016년은 충남여성들에게는 희망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특히 여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주요 도정의 방향이 공표된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담고 있던 갈급함과 희망했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제 모양을 갖추고 풍부한 차림새로 상에 오르도록 해야 하는 짐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모든 역량을 다해 지려 합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한 해가 가는 즈음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도의 관계자분들, 도의회 의원님들, 여성 기초의원님들, 무엇보다 정책연구와 교육사업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연구와 교육사업의 주체이신 충남여성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격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정선

충남
여성in



변화하는 시대, 앞서가는 여성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오배근 위원장입니다.

충청남도의 여성·가족·다문화 등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각종 연구사업 및 교육활동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10만 도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으로 발간되는 [충남여성in]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소식지가 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안정선 원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도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인과 더불어 함께 상생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여성, 가족, 다문화, 청소년 문제와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인적 자원개발, 역량강화,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여성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인력양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기존의 가치와 지식 그리고 사고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여성의 활동영역은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왔으며 기존에 해오던 여성의 역할 중에서도 그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영역은 영역대로 기능은 기능대로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볼 때 여성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충남여성들이 선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충남여성들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만드는 세상

충남^인 여성ⁱⁿ





2015 충남여성이슈

또 훌쩍 지나가는 한 해.

올해도 변함없이 다사다난했습니다.

메르스, 내팔지진, 난민소년의 죽음, IS…….

2015년 우리 충남여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올해의 '충남여성이슈'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풀뿌리 활동에 흠뻑 빠진 충남, 여성친화 마을을 꿈꾼다”

2015년 충남여성이슈로는 단연 ‘풀뿌리 여성공동체 활성화’가 첫 손가락에 꼽혔다. 이는 ‘충남 풀뿌리여성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면서 지역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 충남여성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풀뿌리여성대회의 가장 큰 의미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여성들의 활동이 크게 도약했다는 점이다. 이런 경험들이 지역 여성들과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여성들의 일자리 찾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우울한 소식과 여성계에 큰 논쟁거리였던 양성평등기본법 올해의 뉴스에, ‘SNS’와 ‘여성친화도시’는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되었다.

이슈는 어떻게 선정했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6인을 선정하여 이메일로 설문을 받았다. 선정위원들의 활동 영역과 관심사에 따라 총14개의 이슈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중복되는 항목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언론 등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편집부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이슈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던 사안이라도 이런 기회에 되짚어 보면서 지역을 한 번 돌아 보았으면 한다.

이슈 선정위원

민병춘 • 논산시의원

임원정규 •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강윤정 • 천안NGO센터 센터장

차경선 • 논산시 장애인협의회 회장

최미자 •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지회 지회장

심규상 • 오마이뉴스 기자

Issue

01 풀뿌리 여성공동체 활성화

“지역을 살리고 여성을 살맛나게 하는 풀뿌리 활동”

임원정규 | 충남 풀뿌리여성대회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여성들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고, 충남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구기 위한 여성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규상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올해 매주 금요일마다 두 달 동안 벌인 ‘풀뿌리자치학교’는 도내 각 지역 핵심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들이 각 지역에서 서로 네트워크하면서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옹달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윤정 | 충남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마을공동체활동의 경우, 여성이 중심이 되어 모임을 이끄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천안NGO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참여자의 90% 이상이 여성이었다.

02 성인지교육 확산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바꾸는 성인지 교육”

심규상 | 도내 성인지 교육이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자치단체별 공무원 대상 성인지정책교육, 시민단체 관계자, 이·통장, 지역 언론인, 사회복지 관계자 등 여러 계층과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듯, 주기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생겨야 한다.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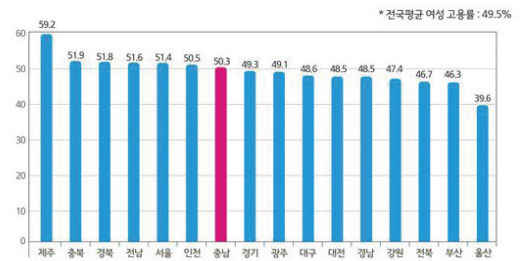
01 충남지역 여성고용률

“여성 고용률은 뚝, 성별 격차는 찌어”

심규상 | 지난 해 기준 충남지역 여성 고용률이 50.3%로 떨어졌다. 성별 고용률이 지난해 24.1%p 차이가 벌어졌다.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 30대 여성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러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CWPDI 젠더 브리프 제 15호
통계로 보는 여성가족복지다문화젠더 이슈

<그림 1> 충남 여성 고용률(2014)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02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민병준 |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우리 도에서도 2016년 신년도 계획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위원 40% 참여를 실천항목에 포함시켰다.

key word

01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의 만능도구 SNS, 정보소외계층도 고려해주기를”

차경선 | 논산의 직거래장터 밴드, 서천의 맛집·여행 밴드 등 최근 여성들의 밴드활동은 풀뿌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편집부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는 활동이나 관심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널리 사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틀어서 SNS라고 부른다. 최근 지역여성 조직이나 소모임 활동이 이러한 온라인 도구의 활용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정보소외계층의 경우 오히려 정보소통망에서 더욱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관심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02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차경선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했다. 논산시의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정책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100대 좋은 조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여성친화도시 장애인분야 간담회도 열렸다.

편집부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한다. 현재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높여 양성이고루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실천하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선정기준을 마련한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66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논산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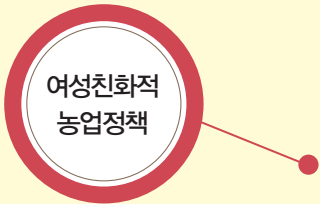
2016년 충남여성 이슈는 이런 것이었으면, 노력해줘 CWPDI!

선정위원들이 남겨주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바라는 메시지를 희망이슈로 재구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이 실제로 충남여성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활짝”

심규상 | 청소년에게 아침이 있는 삶을 되찾아주자며 ‘9시 등교제’가 화제가 됐다. 지난 9월은 ‘9시 등교제’ 시행 1년째가 되는 때였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논의는 실종됐다. 여성 복지, 여성 인권의 화두를 ‘여성들의 아침이 있는 삶과 저녁이 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를 놓고 조사·분석해 보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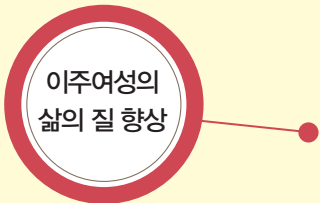
“여성친화적 농업지원 정책으로 여성농민들의 삶의 질이 쑥쑥”

임원정규 | 충남 농촌여성의 삶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주변화 된 여성의 삶에 대해 젠더적 정책의 실현을 위한 사업과 연구를 진행해주시기를 바란다.



“여성참여 증가로 충남 양성평등정책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임원정규 | 충남도 및 시군의 민·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실태조사 및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높아지고 행복지수는 평창”

최미자 |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이주민의 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단지 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주민을 바라보고 그들의 권리를 찾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면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장애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충청남도로”

차경선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여성이 마을을 구한다

테마기획 · 마을과 여성


탐방 | 여성농민들의 비빌 언덕,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좌담 | 변화의 선봉장, 여성이장들

사례 | 마을에서 노는 재미,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







여성들이 농촌에 사는 데 가장 큰 걸림들은 무엇일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집안일 농사일 다 잘하고 아이 쑥쑥 낳고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요구는 변함이 없다. 거기다 최근에는 영농산업 일선에서 마케팅과 판매까지 훌륭하게 해치우는 사업수완까지 요구된다. 농한기도 사라지고 밤낮 없는 끝 모를 노동의 순환 속에서 농촌여성들은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

우리 충남 여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본다.

먼저 농촌여성들의 의지처, 여성농업인센터를 찾았다. 농촌여성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들이 온갖 문제를 안고 찾아가는 곳, 또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일을 도모하러 가는 곳, 쉼터이자 해우소이며 전략기획실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충남에는 예산, 서천 등에 총 5곳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다.

그 중에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여성농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준 홍성여성농업인센터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최근 마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이장들을 만났다.

마을의 권력이 아니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선하고 있는 마을 일꾼들을 통해

현재 마을의 문제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희로애락을 들어본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여성소모임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마주하고 어떻게 일을 엮어 가는지 탐색해본다.

무슨 재주로 힘없는 여성들이 마을을 구할지,
냉혹한 현실과 따뜻한 꿈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자.

“여성농민들의 비빌 언덕, 여성농업인센터”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이하·여농센터)는 2002년 4월에 홍성군 홍동면에 문을 열었다. 올해는 햇수로 13년째다.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 속에서 여성농업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2001년 농림부가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그 이듬해 18개소를 정식으로 개소되었다. 홍동면은 풀무학교를 배경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이들이 모여 살았다. 이 센터 역시 당시 여성농민들이 힘을 모아 유치하고, 여성농민과 아이들 그리고 마을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엄청난 실천력으로 해냈다.

전국적으로 여농센터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농민사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나는 여성, 신나는 아이들, 신나는 농촌’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 현재 여성농민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사업,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초·중 방과후교실, 그리고 마을도서관과 농산물직거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의 제5대 센터장을 맡고 있는 곽영란 센터장을 우리 개발원의 이채민 연구원이 만났다. 곽영란 센터장은 풀무학교 출신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에 잠시 나가있다가 다시 홍동으로 돌아온 지 35년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지역에서 만든 갓골어린이집 교사로 시작해 시설장까지 거친 후, 2013년부터 여농센터장으로 일해왔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여성농민이기도 하다.

신나는 여성,
신나는 아이들,
신나는 농촌



“문턱 낮은 열린 공간”

**요즘 다들 바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농민들의 삶은 더 바쁜 것 같다.**

우리 할머니 엄마 세대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바뀐 게 거의 없다. 농사일하고 아이 양육하고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고, 거기다 전에는 농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 겨울에도 쉼 새가 없다. 농사를 지으면서 공장에 일하러 가고 집에 돌아가면 또 일하고, 끝이 없다.

문제는 일 년 내내 바쁘게 살아도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그래서 여성농민들은 안 아픈 곳이 없다. 그 몸으로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할 정도다.

흥성여성센터의 활동을 소개해 달라.

여성농민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고, 귀농여성들을 시골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책임져주는 부분이 중요해서 어린이집과 초·중 방과후교실을 운영한다. 필수적으로 고부갈등, 남편과의 갈등, 아이를 키우며 힘든 점 등을 상담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어려서는 아이와 문제가 없었는데 크면서 엄마를 무시해서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 아이가 핸드폰에 너무 집착하는 등 대부분 아이들 이야기가 많고 고부갈등도 빠지지 않는다.

필요한 물품을 공동구매한다. 5~6년 전에 여성재단에서 컨테이너하우스를 지원받아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아나바다 장터나 옷 만들기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보통 무슨 무슨 센터라고 하면 문턱이 높는데, 여기는 문턱이 낮은 것 같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든다. 소모임, 요가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이 주말까지 진행된다. 꼭 여성센터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학부모 모임이나 봉사단체 모임도 이뤄진다. 여성농민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다. 초·중등학교 아이들도 항상 온다. 아이들의 부족한 영어·수학을 귀농하신 분들이 재능봉사로 지도해준다.

그리고 책 읽어주는 모임, 비폭력대화 모임, 토종씨앗 모임 등 크고 작은 여러 단체들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일 년 내내 뭐가 크고 작은 일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나?

회원제다. 일 년에 만 원 회비를 받는다. 그 만 원은 소속감의 의미다. 더 받기는 어렵다. 그 만 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농민들은 지갑에서 만 원짜리 한 장 꺼내기조차 쉽지 않다. 현재 회원은 300명 정도 된다. 준회원과 정회원제로 운영된다. 정회원이 약 50여 명이다. 연령대는 이사들이 주로 5,60대고 흥동마을 특성상 귀농한 사람들도 많다.

최근 귀농·귀촌이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과 토착민들의 관계는?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나름 갈등도 있다. 세대갈등도 있고 토착민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고 섭섭해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일단 마을에 알려야 한다고 말해준다. 마을회관에 찾아가 어르신들도 뵙고 이장님, 부녀회장님께도 인사를 하라고 한다. 물론 그렇게 해도 같이 동화되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즘은 워낙 귀농한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지내도 불편함은 없다. 그러나 귀농인들 중심으로만 축제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토착민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농촌에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일 년에 회비 만 원,
여성농민들은 지갑에서
만 원짜리 한 장
꺼내기조차 쉽지 않다.”



여성농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농센터에서는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늘 사람들이 모이고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여농센터를 통해 마을주민들은 교류하고 정보도 얻고 자원을 공유한다.

“여성농민도 직업이다”

조금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농촌의 큰 변화 중 하나가 다문화가 아닌가 한다. 그 쪽에 대한 지원이 토착 여성 농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흥성군 내에 다문화가정이 지난해에 500가정 정도 된다고 들었다. 그중에서 혜택 받는 경우는 얼마 안 된다. 나머지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마을중심으로 가야한다. 부녀회장님과 이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분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분들에게 정보가 안 들어간다. 교육이든 지원이든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사각지대도 없고 마을에서 문화가 싹트고 공동체가 싹튼다. 다문화여성들도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고 식구고 여성농민이다. 다문화를 따로 놓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토착여성농민들과 이질감을 조장하지 말고 여성농민으로 다 함께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여성들이 마을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힘없고 약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농업은 항상 정책에서 제일 후순위인데, 여성농민은 그 맨 밑에 있다. 여성농민을 직업훈련 시켜서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지 말고 농사짓는 걸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여성농민도 직업이다. 여성농민을 직업으로 인정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또 마을여성리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장님은 기본적인 활동비라도 나오지만 부녀회장은 아무 것도 없다. 근데 일은 다 한다. 군·면 행사에서 식사 준비 등 온갖 허드렛일은 도맡아 한다. 축제도 부녀회장 없으면 못한다. 그동안 부녀회장한테도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요구해왔다. 부녀회장들은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마을의 리더들이다. 부녀회장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흥성은 어떤가?

흥성 중에서도 흥동면은 특수하다. 풀무학교가 5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은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농촌에서 아이를 낳고 여기서 교육받고 일하고 결혼해서 다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일을 해보지 않으면 한쪽만 크게 된다. 특히 일 중에서도 농사를 지어봐야 한다. 길러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풀무학교는 사람이 사는 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철학을 가지고 농촌에서 사는 법을 가르친다.



여성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여농센터의 직거래장터

“농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귀한 존재들”

오늘날 농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농촌을 바라보는 철학과 장기적인 전망이 없다. 농민지원이 있지만 결국 받는 사람들만 받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차고에 그냥 쌓여있다. 여기에 힘없는 여성농민들은 지원도 못 받는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귀한 존재들이다. 귀농인이나 귀촌인 구분 없이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 귀촌을 원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다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오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실 그 마음만 가지고 오면 나머지는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오면 머물 곳이 없다. 안전한 주거 제공으로 언제라도 와서 쉬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사일도 배울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나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일대일로 농사를 지으며 실습할 곳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재원은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

앞으로 여농센터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제는 찾아가려고 한다. 정착 센터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들고 우리가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부녀회장, 이장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한다. 올해도 제초제에 대한 교육을 했다. 그렇게 교육을 해도 결국에는 “제초제는 해야 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

러신다. 그래도 쓸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 교육을 계속한다.

내년에는 복잡한 거 다 걷어내고, 노인회관 가서 편안하게 밥 한 끼 나눠먹는 일을 하려고 한다. 같이 노래 부르고 놀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느꼈다.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문턱을 낮추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소모임을 네 군데 지원하더라. 충남이 이렇게 넓은데 네 곳으로는 부족하다. 풀뿌리 소모임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에서 여성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고갈될까 봐 걱정이다. 그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불씨이다.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

지역에서 여성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고갈될까 봐 걱정이다.



곽영란 홍성여성농업인 센터장

“마을에 부는 신선한 바람, 맑고 따뜻하여라”

요사이 마을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여성이장들의 진출이다.
아직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이장을 맡는 여성들이 늘면서 마을이 달라지고 있다.
충남에서 활동하는 여성이장 세 분과 우리 개발원의 연구원이 만나
그 변화의 실체를 짚어보았다.
사회는 마을만들기와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인 복권승
충남도랑살리기추진협의회 대표가 맡아주셨다.



일시 2015. 12. 2(수) 14:00~16:00 홍성군 흥동면
사회 복권승 충남도랑살리기추진협의회 대표
패널 **강미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오리 이장
김영희 태안군 이원면 내리 이장
장숙영 홍성군 흥동면 팔괘리 이장
태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교육사업팀장

사회 마을의 절대권력 이장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다. 마을에서 살아보면 알지만 이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류하나 떼려고 해도 이장님 사인이 필요하고 마을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이장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1997년에 울산에서 여성이장을 처음 봤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이장이 늘더니, 충북은 여성이장이 8%, 충남은 4%가 조금 안된다고 하더라.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보수적이라 이장이 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모신 세 분은 넓고 넓은 충남에서 고루고루 모셨다. 세 분이 각각, 아파트단지 이장, 농업형 마을의 이장, 바닷가 어촌마을의 이장이다. 마을에서 새 역사를 쓰고 계신 분들이다. 어떻게 이장님이 되셨는지 궁금하다.

* 이하 별색표시는 사회자

“보온병 들고 마을 돌고, 트럭 몰아 상토 나르고”

강미경 내가 사는 곳은 3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다. 관리사무소도 있고 노인회장도 계신데, 그 분들이 추천하셨다. 이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등 떠밀리다시피 맡게 됐다. 그런데 해보니까 재미있다. 이제 이장 3년 차인데 보람도 있고 게다가 일 년도 안 돼서 신창면 이장단협의회 총무를 맡았다. 일이 커졌다. 너무 바쁘다.

장숙영 우리 부락은 41가구다. 나는 이제 2년차다. 아이가 고3, 고1, 초1이다. 내가 아직 젊고 막둥이도 어리

니까 이장은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부락 어르신들이 엄마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맡았다.

김영희 이장 6년차다. 우리 마을은 태안 최북단에 자리한 ‘가다가다 만디’라고해서 만대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바닷가 마을이다. 우리 면에서 제일 큰 마을이고 주민이 296명이다.

태희원 우리는 이장님 하면 ‘아, 이장입니다’ 하면서 방송하는 것만 떠오른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강미경 이사 오고 가는 사람들 전입 도와주고, 관리실에 협조할 일 있으면 하고 노인정 신경 써드리고, 간혹 시설보수나 이런 걸로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후원받는 일도 한다.

장숙영 우리는 농사짓는 시골마을이니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농로길 파손되면 보수하는 것, 수로관 사업 같은 거다. 도의원이나 군수님도 만나 뵙고 마을에 필요한 것

해보니까 재미있고
보람있다.
할 일이 없는지
자꾸 주변을
돌러보게 된다.



강미경 이장 도농복합지역인 아산시 신창면 300세대 아파트를 맡아, 마을주민들의 사랑을 듬뿍받는 이장 3년차

이 있다고 도움을 청한다. 혼자 기거하다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자녀분들한테 연락해주고 장례물품을 전달한다. 경조사 챙기는 일도 많다.

보태자면, 어르신들 예방주사나 통계조사 같은 것도 다 이장 소관이다. 또 농협의 영농회장직을 겸하니까, 분리수거, 농약병 관리 같은 것도 다 해야 한다. 요즘은 마을조사나 연구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원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라도 대접하고 요청하는 것 들어줘야하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도 나와야 한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부가 이장님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말 일이 많은데, 남성이장과 여성이장이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강미경 차이점을 꼽자면 투명성인 것 같다. 여자들은 편법을 쓴다든가 그런 게 없다. 남성이장들이 편법을 쓴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여성이장들이 일처리도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뒷말이 날 게 없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일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여성이장들의 특징이다.

장숙영 이장 홍성군 흥동면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 주민들의 지지 속에 마을 숙원사업도 척척 해치우는 이장 2년차

김영희 맞다. 여자들의 장점은 투명성이다. 남자들은 뭘 따지냐며 대충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건 된다고 분명하게 한다. 또 서류처리도 여자들은 모르면 물어가면서 자기들이 직접 다 챙긴다.

장숙영 우리 마을에 공문이 오면 빠짐없이 전부다 일러 드린다. 어르신들이 “이런 게 있었어?” 그러신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투명성이다. 또 남자 이장들은 농로길이나 도로포장처럼 외관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주로 하는데, 여자들은 회관 부역을 고친다든지 일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차이점인 것 같다.

김영희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다. 어른들은 여전히 선입견이 있다. ‘암탉이 울면 어찌고’ 하는데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여자라고 업신여기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 같다. 처음에는 여자들조차도 여자가 이장 돼서 좋다기보다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테스트하려는 심리가 있었다.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마을을 돌다가 나눠드리고 그랬다. 그때는 웃긴다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여성이장님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가사와 더불어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남편이나 가족들은 잘 협조해주나?

장숙영 시골에서 남편이 하라고 안하면 여자들이 이장하기는 어렵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주지만 그만큼 내가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우선 아이가 어리니까 그게 제일 문제였다. 처음 얼마동안은 엄마가 이장이라서 좋다고 자랑도 하더니,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냐고, 나랑 놀아달라고 한다. 거기다 논농사·밭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적기에 심어야 하는 시기가 겹치면 어느 한쪽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부모님들이 한 마을에 사시니까 며느리로서 도리도 해야 하고, 살림하라, 농사하라, 육아



직함이 있거나
없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주민은
다 똑같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면 된다.

김영희 **이장** 태안군 바닷가 마을에서 절대 카리스마로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이장 6년차 베테랑

하랴, 마을 일보랴, 너무 벅차고 힘들다. 지금 마을에 김장이 다 끝났는데, 우리 집만 남았다.

김영희 여자들이 이장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남편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못한다. 우리 남편은 내가 너무 고마울 정도로 밀어준다. 어디 가려고 하면 빨리 밥 먹고 가라고 한다. 또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마라고 격려해준다. 우리 면에서 소문났다. 오히려 내가 미안할 지경이다. 너무 고맙다.

강미경 우리도 잘 밀어주는데 대신 가정생활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여자가 할 일은 해야 한다. 밖에서 일하다가도 아이들 밥이나 남편 들어오는 시간은 지켜줘야 한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내년까지 하고 그만두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다.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너무 잘 듣고 와서 힘들어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부부싸움 참견도 이장의 일”

힘들 때는 힘들지만, 마약 같이 않은가 이장이라는 일이?

강미경 나는 농사를 안 짓는데다 아파트에서 살다보니 농사철에 나오는 비로나 상토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장이 된 첫 해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사인 받고 그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근데 해가 갈수록 익숙해지니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더라. 이제는 할 일도 눈에 보이고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해마다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과 그래도 이걸 안하면 서운할 것 같다는 미련이 교차한다.

장숙영 잘못했다고 꾸중 들으면 내가 왜 이걸 하나 싶다가 칭찬받을 때는 더 하고 싶다가, 그렇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내년까지 하고 그만두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다.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너무 잘 듣고 와서 힘들어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태희원 얼마 전에 우리 개발원에서 ‘여성농업인리더교육’을 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사회자 복권승 친환경적이고 친여성적이며 마을을 재미있게 변화시키는 생태주의자

우리나라 여성들 마음속에는 자치, 즉 스스로 다스리고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 억눌려서 그렇지 조금만 열어주면 아주 잘한다.

장숙영 시골에 여성이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시골에는 혼자 계시는 여자어르신이 많다. 남성이장들도 들여다보시지만, 여성 이장들은 방이나 부엌까지 들어가서 뭐 필요한 게 없는지 도와줄 일은 없는지 더 자상하게 살펴봐드릴 수가 있다.

이장에게 모성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마을회관에 할머니들이 70%다. 여성이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장을 하면서 개인적인 생활의 변화도 있었나?

강미경 이제는 집을 나서면 뭔가를 자꾸 보게 된다. 주위도 둘러보고 게시판도 살펴보고 현수막이라도 걸려있으면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보게 된다. 어느 집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경비가

저씨한테 가서 물어보고 혹시 내가 가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알아본다.

김영희 내가 처음 이장을 시작할 때 마을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장은 마을의 모든 일에 참견을 해야 한다. 부부싸움까지도.” 마을 분들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장한테 물어본다. 이런 것도 이장한테 물어보나, 싶은 걸 묻는다. 고추 열 근을 이장은 몇 킬로로 치냐? 같은 시시콜콜한 걸 묻는다. 그때 아, 그동안 여자 이장이 없어서 여자들이 이장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못했구나. 여자이장이 있으니깐 편하게 물어보는구나 싶더라. 그래서 내가 아는 거는 다 동원해서 답을 주고 모르는 것은 알아봐서 연락을 줬다.

장숙영 예전에는 아이들 키우고 농사짓고 내일만 하면 된다고 했다면 지금은 내 일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 일까지 봐줘야 한다. 바쁘니까 날씬해지고 예뻐진다.(웃음)

아까 도의원님들이나 군수님도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농협에도 가고 할 일이 많은데 남성이장들보다 목소리가 작거나 여성이라서 서운한 일을 당한 경우는 없었나?

강미경 아파트형 마을은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 관리사무소에서 웬만한 문제는 다 챙겨주시고 어디 가서 휴대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장숙영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는 것 같다. 우리 면장님은 더 챙겨주시면서 마음을 더 써주셨다. 빨리 해결됐던 일도 많아서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보다 우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시시콜콜 별걸 다 물어본다. 아, 그동안 여자 이장이 없어서 물어보고 싶어도 못했구나. 여자이장이 있으니깐 편하게 물어보는구나 싶더라.”

태희원 이장이 된 후에 해결했던 대표적인 마을 숙원사업이 있다면?

장숙영 우리마을 농지정리 구간은 남편이 고등학교 때 짬 만들어진 것이다. 한 30년 정도 되니까 양쪽에 배수관이 노후돼서 다시 손을 봐야하는데, 그동안은 자기 눈앞에만 조금씩 해놓아서 도로 포장도 해도 역류하거나 물살에 파헤쳐졌다. 군에 가서 민원을 넣으니까, 모르고 있더라. 십년 넘게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군에서 모른다는 게 이상했다.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하니 해결이 됐다. 너무 큰 사업이라고 해서, 단위를 잘라서 차곡차곡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수로관을 밑에서부터 천천히 작업 중이다. 내년까지 하면 다 이어진다.

“이장, 어떻게 좀 해봐!”

대단하다. 여성이장들은 일도 잘한다. 그런데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늘 일어나지 않나. 이 속에서 갈등구조를 풀고 다독이는 것도 이장의 몫이더라.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

김영희 어느 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정식으로 회의 통해서 한 일인데 어떤 사람이 내가 독단적으로 뒤로 일을 처리한 것처럼 막 몰아붙였다. 너무 억울해서 따지러 가려고 했다. 근데 생각해보니 따지러 가면, 안 그래도 이장을 가지고 그렇게 혼드는 사람인데, 무슨 상소리나 자존심을 몽개는 말을 할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내가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에게는 무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했다. 정말 실망이라고. 마을에서 저보다 먼저 마을을 지켜오신 분들이, 제가 이장이 될 때 인정을 해주신 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이장을 이렇게 흔들고 주민들을 선동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이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랬더니 여러 말들이 싹 들어가더라.

태희원 멋지고 훌륭하다. 갈등이 있을 때 공식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장숙영 사람들이 일 생길 때마다 이장이 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데, 나도 난감할 때가 있다. 사안에 따라 경찰의 도움도 받고 급할 때는 119도 부른다.

강미경 다른 이장님들 말씀 들어보니 나는 참 편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우리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살아서 많이들 아신다.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아버님을 17년을 모시다가 여기서 임종을 지켰다. 그래서 마을 분들은 제 마음을 안다. 젊은 새벽이 고생 많이 했다고 저를 보듬어 주신다. 조금 실수를 했다 해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해주시니까 크게 곤란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다.

다문화, 고령화 등 마을의 변화가 모성애와 여성성을 가진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마을의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직장과 집이 일치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권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민감한 부분이 많다. 아파트단지 같은 도시형 마을은 출퇴근을 하면서 일은 다른 데서 하니까 실제적으로 공공의 이슈가 적어서 이장의 부담이 덜하다는 게 특징인 것 같다. 그런데 최근 58년생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분들의 귀농귀촌이 대대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다문화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장숙영 시집오느라고 이 마을에 왔으니 어떻게 보면 나도 귀농인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귀농인들에 대해 다른 감정은 없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더라. 우리 마을은 세대가 적어서 귀농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임시로 잠깐 살다 가신 분들이 계셨다. 이 분들은 유기농사를 짓겠다고 약을 안치고 제초제도 안 쓴다. 그러니 어른들 눈에는 건강관리 때문에 농지를 제대로 관리 안하는 걸로 보이는 거다. 땅을 주면 풀밭을 만든다고 귀농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

김영희 우리 마을에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문화가정도 있다. 나는 무조건 결혼이후 여성 편이다. 어린 나이에 먼 데로 시집와서 어렵게 사는 걸 보면 안타



깝다.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언니가 되어주고 아이들의 이모가 되어주려고 한다. 사람들이 빨리 자리 잡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

강미경 우리도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대체로 잘 살고 있다. 별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인이 집을 나가면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가 있었다. 남편은 술만 먹고 아이들은 완전히 방치되었다. 집에 찾아갔더니 집안은 엉망이고 아이들이 앓을 책상도 없었다. 면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다. 벽지 다시 바르고 애들 책상도 마련했다. 지금은 도우미가 잠깐씩 와서 도와준다. 그래도 엄마의 공백이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그렇게라도 유지해가고 있다. 그런 집을 볼 때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있지만 너무 안타깝다.

태희원 이런 경우는 필요한 행정을 잘 연결시켜 준 사례다. 이장님들이 행정의 제일 앞에서 주민과 직접 맞닿는 부분에 위치해 계시다는 걸 새삼 느낀다.

여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하면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될까. 또는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계획이 있나?

강미경 그동안은 열심히 주어진 일만 했지, 우리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뭔가 차별성 있는 좋은 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특별히 해보지 않았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장숙영 우리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산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마을의 소득이 결정된다. 그걸 잘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김영희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마을의 복지다. 그게 너무 미약하다. 취미활동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른다. 죽으나 사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놀고 쉴 수 있는 걸 해드리고 싶다. 주변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지원을 받

아 어르신들 요가라도 시켜드리려고 강당을 지었다. 남은 공간이 아까워서 책장을 짜 넣고, 서울 가서 책을 기증받아왔다. 그리고 체험마을을 하려고 체험관을 짓고 있다. 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마을에서 나온 걸로 하고 그 옆에 직거래 판매장도 만들 계획이다. 발바닥에 땀나게 뛰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같은 여성이장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후배 여성이장님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강미경 투명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인 것 같다. 나 이전에는 나이든 여자 이장 두 분이 계셨는데 내가 이장이 되니 다른 아파트에서도 젊은 여성이장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면에는 지금 여성이장이 여섯 명이다. 예전에는 여성이 이장이 될 생각도 안 했고 되더라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김영희 여성들이 이장 하는 게 참 좋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몇 가지 꼭 전할 말이 있다. 나는 술을 못 먹는다. 사람들이 이장 하려면 술을 먹어야지, 이장이 술자리도 좀 가고 해야지 그런다. 하지만 남들이 원한다고 해서 비위 맞추기 위해 따라가지 마라. 대신 과민반응도 하지 마라, 내가 할 일만 딱딱 잘해라. 그러면 결국 인정받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나 조용한 사람이나 직함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주민이다. 그분들을 다 똑같이 대해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하면 된다.

앞으로 여성이장들이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장들이 만들어내신 좋은 성과들을 부각시키고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여성이장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다. 여성들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갈등해소도 잘한다. 거기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다문화, 고령화 등 마을의 변화가 모성애와 여성성을 가진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자”

장면1 눈이 번쩍, 긴 잠에서 깨어나다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만났던 젊은 친구였다. 그냥 편하게 보자고 하지만 모임이나 만들자는 거 아닌가 싶었다. 이런저런 모임에 가보면 끼리끼리 뭉쳐서 소외감만 들뿐, 어디서 오라고 해도 반갑지 않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절할까 했는데, 어쩔 일인지 마음이 끌린다. 염탐이나 해보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재미나다. 청양에 와서 원주민을 자처하고 산 지 13년 만에,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이다. 바로 이거다. (윤예주 마을활동가)

장면3 엄청난 에너지, 못할 일이 없겠다

풀뿌리여성대회에 참석했다. 청양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알게 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행사라 호기심에 와 보았다. 충남 안에서도 작고 낙후된 청양이라는 소읍에서 나 혼자만 엉뚱한 꿈을 꾸고 있나 싶었는데 여기오니 그간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싹 달아나는 것 같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충남 각지에서 모인 여성들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 막연하게 생각해 온 꿈이 실현가능한 현실로 다가왔다. 청양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이민주 청양군도농교류센터 사무장)

장면2 갈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역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 사람들 좀 모아달라고 한다. 이리저리 스무 명 남짓 청양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모았다. 처음에는 왜 모이는지 좀 어리둥절했다. 의례적인 관 주도 모임과는 달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소모임 사람들을 만나겠다. 위원회나 협의회 대표들도 아니고 우리같이 소박한 사람들을 찾는 게 이상하다. 만나고 보니 지역에서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도모하는 풀뿌리 모임을 발굴하여 지원하겠다. 글썄,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능할까? (양수영 청양지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팀장)

장면4 도원결의, 네 개의 고리가 만나다

간담회 이후, 소모임을 꾸려보자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간담회에 왔던 사람의 절반이 모였고, 다시 그중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았다. 허탈할 법도 한데, 남은 네 사람은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힘 되는대로 하자고 했지만, 일단 뭉치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우리 네 사람은 아주 오래 손발을 맞춰 온 것처럼 호흡이 척척 맞는다. 이제 소걸음으로 천천히 늘면서 가면 된다.

(박영숙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양수영 대표

박영숙, 이민주, 윤예주 (왼쪽부터)

여성, 부역에서 지역과 세상을 보다

그렇게 네 명의 여성이 만난 일은 아마 청양의 향토사에 기록될 일이 아닐까 싶다. 조용히 천천히 하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분명히 일을 내고야 말 것 같다.

이름은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 먼저 부역에서 시동을 걸었다. ‘여성, 부역에서 지역과 세상을 보다’라는 사업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공모한 ‘풀뿌리 소모임 성장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지역의 여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먹거리가 주제가 되었다. 네 명의 회원이 각자 몸담고 있는 분야와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인복지, 가정폭력, 농촌관광, 다문화 등 다양한 주제가 물망에 올랐다. 논의 끝에 지역여성들 누구라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거부감이 없는 ‘먹거리’로 결론을 내렸다. 물론 그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생협 활동을 해왔고 지역에서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하는 박영숙 이사장이 있었다. 바른 먹거리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를 이용해 우리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먹는 일부터 시작해보자는 제안에 사람들이 공감한 것이다.

물론 바른 먹거리가 일차적인 목표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여성들이 나눔과 소통의 재미를 깨닫고 스스로 ‘행복해지자’는 게 궁극적인 바람이었다.

우선은 우리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한번 짚어보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공부해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우리가 제일 즐겨먹는 간식인 치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음식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부여여성농민회를 초청해 농사에서 종자의 중요성과 토종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었다. 질병과 가공식품의 연관성에 대한 강의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대안을 찾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지역 사람들에게 좀 지루하거나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간 듣기 어려웠던 알찬 강의에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부를 할수록 배운 것들을 빨리 실행에 옮기고 싶은 욕심이 커졌다. 공부를 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밥상을 한번 차려보자 해서 팜파티를 열었다.

나눔과 소통의 재미를 깨닫고
스스로 행복해지자

마을이 담긴 밥상

팜파티(Farm Party)는 말 그대로 농장에서 벌이는 파티로 사람들이 농장으로 찾아가서 농촌의 풍광을 즐기며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로 조리된 음식을 맛보는 이벤트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기 지역의 특산물 마케팅을 위해 팜파티를 자주 연다. 청양이라면 구기자 농장에 가서 구기자로 된 요리를 먹으며 공연이나 이벤트를 즐기는 식이다. 물론 생산물이나 가공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팜스테이 같은 부대사업의 수입도 올려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도 주된 목적 중 하나다.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에서는 이 팜파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나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그것을 각자 가져와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나눠먹는 것이다. 생산자와 공급자, 판매자와 소비자는 필요에 의해서 엮인 관계가 아니

라 함께 밥을 먹는 이웃이자 식구가 된다. 요즘 도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소셜다이닝'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다이닝이 밥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면, 행복네트워크의 팜파티는 거기에 지역성을 더한 것이다.

'로컬푸드로 밥 한 끼 먹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9월에 팜파티를 열었다. 오가피김치, 청계만두, 구기자머핀, 기정떡 등 30여 가지 로컬푸드가 등장했다. 맛도 맛있지만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사연도 맛깔났다.

박영숙 이사장은 팜파티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을 '자신감'이라고 했다. "우리끼리 해도 되는구나." 음식을 나누는 과정이 사소하고 평범한 일 같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보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청양에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먹거리 강좌를 들으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금방 실행에 옮길 만큼 평범한 마을여성들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로컬푸드로
밥한 끼 먹자





청양행복네트워크의 첫 번째
뚜벅이 걷기여행

종횡무진 뚜벅이들의 문화생활

행복네트워크는 먹거리 공부를 하면서 별도로 책읽기와 영화모임을 진행했다. 이런 모임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과 손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양에서 생태와 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복권승 선생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 행복네트워크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일이다. 공간이 생기니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이니 재미있는 일들이 자꾸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뚜벅이가 되어 마을길을 걷기로 했다.

청양에는 83개리에 360개 정도의 마을이 있다. 청양 토박이들도 평생 청양을 다 훑어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행복네트워크의 첫 번째 '뚜벅이 걷기여행'은 윤예주 선생의 제안으로 그가 사는 화성면 수정마을을 걸었다. 수정마을은 오선산자락에 있는 독립지사 마을로

청양에서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업이 시작된 곳이다. 늦가을 산길의 운치는 길을 잃은 마을 선생님의 불안한 걸음에 금방 문혀버렸지만, 길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가는 길 아닌 길을 걷은 끝에 어쨌든 뚜벅이들은 무사히 원점으로 돌아왔다.

사실 이날의 진정한 즐거움은 걷기 후에 차려질 밥상이었다. 각자 가져온 음식을 펼쳐서 조촐하게 팜파티를 열었다. 때에 맞지 않는 추위와 예상치 못했던 고난도 등반으로 얼떨떨해진 몸을 위로해주는 밥의 힘은 역시 대단했다.

걷기는 봄이 올 때까지 유보하고 그 사이 동안 아지트에서 컬러링북을 색칠하며 놀다가 전시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음 봄에는 강행군이 아니라 진짜 뚜벅이 걷기를 하자는 다짐을 주며, 농번기가 시작되는 마을길을 무례하지 않게 걸을 방도를 고민한다. 봄꽃이 난만한 청양의 저수지 길을 걷고 있을 뚜벅이들과 거기에 차려질 밥상을 생각하니 덩달아 마음이 들뜬다.

행복한 마을 실험실

사람들이 꾸준히 모일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둔 덕분이다. 풀뿌리 사업을 하면서 만난 '부여토종종자지킴이' 팀에게서 씨앗을 얻어다 비봉면에 심었다. 내년 봄에 결실이 나온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니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자신의 역할은 사람들이 모여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명석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양 대표는 생각한다. 그래서 혼자 욕심껏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천천히 여유롭게 행보를 맞춰가고 있다. 양수영 대표의 또 다른 바람이 있다면 박영숙 이사장과 힘을 합쳐 이민주 선생처럼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재미있게 살게 해주고 싶다.



박영숙 이사장은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면 된다. 앞으로도 무언가를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여성들이 모이고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발점을 만들어준 개발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간담회에서 만났던 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풀뿌리 소모임 성장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역에서 무언가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큰 성과다. 부엌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철학을 가진 마을공동체를 꿈꾸지만 박영숙 이사장 역시 서두르지 않는다.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느끼면서 재미있게 하고 싶단다.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자락자족(自樂自足)’의 경지가 느껴진다. 🌱🌍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면 된다.
앞으로도 무언가를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충남여성in] 새겨들을 이야기

“최근 연변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거나 집을 새로 짓는 등 마을의 외관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마을을 사람과 관계가 살아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배워갑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 또한 감명 깊은 배움이었습니다.”
- 허해란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 부주석



연변의 허해란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개발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83쪽에서 확인하세요.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지역에서 달리는 청춘들”

20대 청년여성들이 들려주는 달콤쌉싸름한 마을살이

은퇴자들만 귀농·귀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2030 청년귀농이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들마다 청년 귀농자들을 유치하기에 바쁘다.

이들은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촌은 청춘들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여기, 고향을 지키고 있거나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여성들이 있다.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청년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고향에서 익어가는

그들의 삶과 꿈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다.

2015. 11. 23(월) 14:00~16:00 청양 '카페 Y프렌디'

이민주(22) 청양군도농교류센터 사무차장

윤정욱(26) 논산 달배농장농부 · 문화기획자

박소산(28) 천안 호두와트미법학교 · 책방허송세월 대표

이민주 청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도농교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마을사업이나 두레기업을 지원하고, 청양군에 체험객이 왔을 때 프로그램을 짜주고 연계하는 일을 한다. 친구들은 거의 도시로 나갔다. 영화모임, 공부모임하고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있다.

윤정욱 서울에서 광고 쪽 일을 하다가 회의감이 들어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배 농장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다치셔서 농장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농장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려오게 됐다. 한 1년간 농사만 지었다. 올해가 2년차인데 뭘 좀 해야겠다 싶어서 '달배'라고 농장 이름도 짓고 패키지 디자인도 했다. 직거래장터 관련 일을 하다가 지금은 논산에 게스트하우스 만드는 일에 기획을 맡아 참여하고 있다. '반농반엑스(x)'다. 계절의 절반은 농사를 짓고 절반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내가 그런 경우다.

박소산 천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을 떠나고 싶어서 서울로 갔다. 마을공동체 안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일을 했다. 거기서 일하는 것은 좋았는데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시 천안에 내려와서 편집디자인으로 일하면서 '호두와트마법학교'라는 청년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천안에 호두가 유명하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학교 이름에 갖다 붙였다. 떠돌면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원도심에 공간을 마련했다.

1층은 책방 겸 개인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친구들이랑 함께 실험적인
대안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에서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희소성이
있으니까 관심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얻었다.

멀쩡한데 왜? 서울에서 살지 않는 용기!

이민주 다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은 청양에서 쪽 농사를 지으셨는데 자식들이 농사를 같이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너무나 힘들니 나가서 더 배우고 큰 데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셨던 것 같다. 헌데 내가 청양에 계속 있겠다고 하니 나중에는 그러라고 하셨다. 부모님께서 선뜻 허락하신 게 놀랍다.

윤정욱 처음에는 내가 고향으로 온다고 하니 반대하셨다. 하지만 서울생활이 녹록치 않았다. 청춘을 투자해가면서 살 터전이 못 된다는 생각에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다. 자동차 면허도 없었는데 이제는 운전면허 1종도 따고 수동으로 된 차도 몬다(웃음) 도시에 살 때는 필요하게 될거라 생각 못했다. 농기계는 아직은 잘 못 다루지만 트럭은 몬다.

이민주 나는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다.(웃음) 대학이나 직장을 서울로 간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다.



이민주 어르신들 앞에서도 꼴리지 않는 강단으로 청양을 지키는 젊은 피. 청춘을 함께 불사를 동지들을 찾고 있다.

* 반농반엑스(半農半 엑스)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기본적인 먹거리는 농사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거나 재능에 맞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일컫는다.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만들고, 성공적인 반농반역스가 되고 싶다.

윤정옥 자신과 동갑내기인 배농장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너무 멀쩡한 '반농반역스(x)'

이민주 안정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했다. 그런데 졸업하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어서, 일단 서울로 진출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했다.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계속 하고 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너무 티가 난다. 그러다보니 이곳저곳에서 여러 제안도 받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 일이 재미있고 자신감도 생겼다. 경쟁적인 서울에서 활동했다면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윤정옥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왜 내려왔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반응도 있다. 동네에서 둘째딸이 내려왔다고 하면 멀쩡한 애가 왜 서울에서 일 안하고 여기 왔나,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

박소산 지역에 있으면 소위 출세를 못해서 남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윤정옥 그런 시선 때문에 외부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다. 그게 자극이 되었다.

박소산 지역에 사는 자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하는 집밥 모임의 제목도 '서울에서 살지 않는 용기'다. 이 시기에 서울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시선들을 감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정옥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내려올 수 없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버티는 경우도 많다. 서울을 경험하고 오니까 거기가 어떤 곳인지 내가 겪어보니까 후회는 없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데도 꾸역꾸역 사는 게 지친다. 여기다 저기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

이민주 서울에 사는 친구들을 막상 만나보면 별 것 없기는 하다. 그 친구들은 자취집과 직장을 챗바퀴처럼 피곤하게 오갈 뿐이다. 나는 지역에서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희소성이 있으니까 관심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얻었다. 급여는 적지만, 여기서는 그런대로 생활이 가능하다. 도시라면(아마도)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다. 수입을 떠나서 지역에서는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때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된다. 기회가 그만큼 많이 생기니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긴다.

나는 재미있어서 하는 일인데 청년이니까 지역을 지키라는 무언의 압박도 느낀다. 사명감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일과 꿈? 매 순간이 도전이다!

윤정욱 논산에는 면회객들이 많다. 이 분들이 보통 숙박을 하는데 잠자리나 먹거리를 프랜차이즈로만 이용하고 간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도 막상 지역에는 수혜가 없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 서울에서도 귀농하려는 친구들이 많은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다양한 모색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도시와 농촌의 허브지대로 만들고 싶다.

박소산 우리는 부담을 느끼는 일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 힘들고 피곤해질 것 같은 일은 안한다. 좋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힘들게 갈등하면서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민주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

박소산 1층은 개인적인 사업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층 커뮤니티 공간은 사업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자 생업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제는 이 일이 재미 있어서 직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단계에 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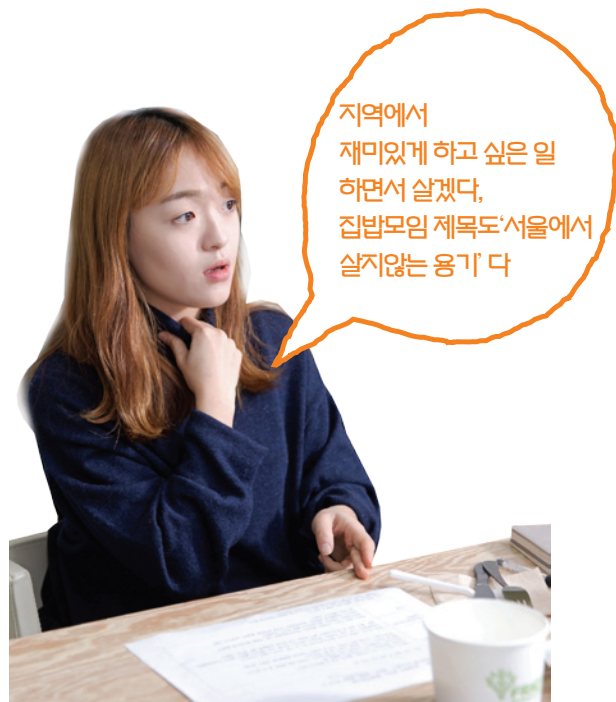
윤정욱 남의 돈을 받으면서 일 할 때는 그 사람의 조건에 안 맞는 게 스스로 두려웠는데 지금은 무한대의 가능성이 생겼다. 자부심도 커졌다.

이민주 주로 중장년층의 어른들이랑 일을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서 어른들에게 스스럼이 없는 편이다. 어른들도 내가 여기서 쭉 자랐고 나이도 어리니까 편하게 대하신다. 그러다보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함이 아니라 이름을 막 부르거나,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른들이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 지역에서 어른들이랑 일할 때는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있는 것 같다.

박소산 처음에는 프리한 마인드로 우리끼리 영화나 보고 책도 읽자고 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더라. 그래서 규모의 문제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다.

이민주 처음에 일을 가르쳐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 많이 배웠다. 그 분이 나한테 커피 심부름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손님이 오면 내가 커피를 타지만 동료나 아는 사람은 고민하게 된다. 매 순간이 순간 고민스럽다. 커피를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같은.(웃음)

윤정욱 귀농정책을 보면 청년들에게 2억씩 주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데, 현장 실정을 모르는 것이다.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는 것이 기술이전 측면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번에 청춘슬로우푸드와 연계된 일을 하면서 밀라노에 농촌체험을 다녀왔다. 느낀 점은 농작물이 값으로만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농사를 안 지어도 되니 농업과 먹거리에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재미있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겠다.
집밥모임 제목도 '서울에서
살지 않는 용기' 다

박소산 천안 원도심을 수호하는 헤르미온느,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질투유발 청춘

청년귀농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지역으로 들어온 청년들은 훨씬 오랜
세월동안 지역을 지킨다.

이민주 경력에 대한 고민도 있다. 일도 재미있고 많이 도와주시지만 아직 체계가 안 잡혀있으니까 고민이 되더라. 정확하게 뭘 하고 어떤 길로 가야할지 잘 모르겠다. 자리를 잡은 선배들이 부럽다.

윤정욱 게스트하우스의 최종 목적은 청년일자리 거점이 되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잘 운영해서 기업으로 만들 계획이다. 사람들은 사라져도 기업은 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논산에 제대로 된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다. 성공적인 반농반엑스(x)가 되고 싶다.

박소산 일단 편집디자인이 아닌 책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생활이 가능해지는 게 목표다. 회사를 만들거나 커뮤니티 성공이라는 포부 같은 것은 없다. 책방을 열면서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미있게 합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좋다.

청년커뮤니티? 누군가는 우리를 발견한다!

윤정욱 천안의 사례가 부럽다. 우리는 지역에 청년들이 없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

박소산 우리도 처음에는 세 명으로 시작했다. 지역에 청년들이 없다고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청년간사한테 청년프로그램을 기획해보라고 해서 그 친구랑 처음 만나

기획을 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났다. 그 친구들 덕분에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다. 활동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마음 맞는 동료다. 지지 않고 천천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동력은 역시 친구들이다.

윤정욱 기획서 쓰는 일을 주로 활동하다보니 그런 현장의 인프라를 많이 만나지 못했다. 지역에 친구가 있어도 우리 또래는 구직활동이 목표여서 다른 활동을 할 여력이 없더라.

박소산 처음에는 서울의 청년허브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시작했다. 그후로 천안문화재단에서 프리마켓, 잡지 만들기 같은 사업비 지원받았다. 봄가을로 계절마다 프리마켓을 진행한다. 셀러들을 섭외해서 매달 수공예교실도 연다. 도자기, 목공, 캘리그래피 같은 것을 셀러작가들에게 직접 배우고 있다.

이민주 부럽다. 원하는 것을 직접 주도해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싶다. 오늘 만나보니까 스스로라도 그런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시작하면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청양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해보았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더라. 지금 생각해보니 꼭 20대가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다.

윤정욱 20대랑 일하면 시간도 많고 마음도 맞고 좋은데 환경이 비슷하다보니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비슷하더라. 일할 때 필요한 게 다같이 없을 때가 있다. 생각만 맞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소산 어느 날 강릉에서 활동하는 분이 우리를 찾아왔다. 천안에 면접을 보면서 페이스북에서 ‘천안, 청년, 커뮤니티’이 세 단어를 검색하니까 우리가 딱 걸린거다. 꾸준히 정보를 올리면 누군가는 우리를 발견한다.

청년과 지역? 기회와 재미의 블루오션!

이민주 작은 도시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게 된다. 희소성이 있으니까 나한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다. 재미있어서 하는 일인데 청년이니까 지역을 지키라는 무언의 압박도 느낀다. 네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명감이 부담이 되기도 한다.

박소산 공간을 만든 지 3년째다. 우리도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다. 시민단체 같은 인프라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며 무엇이 필요인지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루트가 있는데, 지역은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다.

이민주 청양은 충남에서도 손꼽히는 고령지역이다. 그러다보니 노인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청소년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 군이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또 4,50대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청년귀농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청년은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여기서 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

윤정욱 지역민들이 논산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약간 피해의식도 있는듯 하다. 그럴 때 내가 만든 공간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논산이 군인뿐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논산을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시에서 지원이 막 시작되어 청년포럼이 곧 열린다. 이제 시작이다.

이민주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가 있는데 지역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더라. 청년들이 만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나서 농촌에 대한 편견이 많다. 시골에 오면 농사를 지

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나 농촌이나 사는 것은 비슷하다. 생각보다 할 일은 많다.

박소산 어떤 점에서는 블루오션이다.

윤정욱 지역에서는 청년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회다.

이민주 희소한 존재라는 것이 특별한 점이 된다. 나도 농촌체험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능을 지역이나 농촌과 결합시키면 좋을 것 같다.

윤정욱 요즘은 SNS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농촌은 사람을 통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처음 내려온 사람들에게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럴 때, 정보도 주고 활동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정말 필요하다.



지역에 청년이 두세 명만 모여도 시작할 수 있다. 친안 원도심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있는 호두와트마법학교 청년들

꿈, 미래?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다

이민주 같이 일하던 친구들 중에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나?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기면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 활동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

박소산 10월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못 나오고 있다. 잠깐 집중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남자들보다는 더 달라질 것 같긴 하다.

이민주 기존에 고민하던 문제들이 취업이나 미래였다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육아나 먹거리 문제로 관심이 옮겨 가는 것 같다. 주변을 보니 30대가 되어 아이를 키우면 책임기모임 같은 게 활성화되더라. 또 교육이나 먹거리 같은 3,40대만의 그룹이 활발해지더라. 젊은 세대만을 위한 커뮤니티는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 같다.

윤정욱 원래는 청춘 커뮤니티였는데 주부가 되니까 청춘커뮤니티는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주부커뮤니티는 많은데 청춘커뮤니티는 점점 소멸해간다.

박소산 아직은 여자라서 힘든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 현재 우리 커뮤니티는 남성적인 문화는 아니다. 지금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좋다.

이민주 <와일드>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봤는데 여자 혼자 길을 걷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소한 행동에도 더 많은 호응을 받았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 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내가 청양에 있고 여성이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더 어린 친구들에게 저 언니도 저렇게 하네 라는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깨달았다.

윤정욱 아직 나도 시작점에 있어서 뭔가 안 잡고 있었는데, 오늘 만남이 앞으로 긴 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박소산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여성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한 것 같다. 아직까지 여성이라서 특별히 큰 문제를 느꼈던 점은 없지만 분명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윤정욱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이 길을 선택할 청년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민주 우리가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오늘 나 역시 꿈만 꾸고 못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다. 오늘의 특별한 만남, 즐겁고 행복했다. 🌈👭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이 길을 선택할 청년들이 많아질 것이다.”

가로림만 물범 만나러 가요!

플뿌리소모임성장프로젝트
진행하며 지역의 화합 이끌어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에 둘러싸인 태안반도 북쪽에 있는 만(灣)이다. 조력발전 건립을 둘러싼 찬반대립으로 오랜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는데, 그 세월이 35년이요 현재도 진행형이다. 가로림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만큼 지역주민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물범이 가르쳐준 공존의 지혜

그런 가로림만에, 한 여름의 후끈한 바다 열기를 가르고 세 척의 배가 뗏다. 물범을 만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은 생태체험 참가자들이다. 서산주민들조차 서산에 물범이 산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한다. 그간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물범을 보호하자는 운동도 있었고 간간이 카메라에 잡힌 물범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로림만을 조력댐과 연관지어 생각했지 그 바다의 주인 공인 물범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한다.

태안지역에 서식하는 잔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돼 있다.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는 소중한 존재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참가자 50여명은 물범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망원경으로 물범을 관찰했다.

이날 체험에서는 물범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특별했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사람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각별했다. 반목과 갈등으로 골이 깊었던 마을에서 서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던 두 선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문을 트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물범이 사람들에게 준 큰 선물이었다.

지역성이 살아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날의 탐험을 준비한 사람들은 서산폴뿌리여성연대다. 지난 2월 개발원이 마련한 서산지역 폴뿌리소모임 간담회에 참석했던 단체들의 연대모임이다. 갯벌생태연구모임, 놀이하는 사람들, 미소주부독서회, 뿌랭이생활협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한살림 등 서산지역에서 활동하는 9개 단체가 뭉쳤다.

처음 지역에서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자며 연대를 꾸렸지만 지향점이 없는 연대가 잘 유지될까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개발원의 '폴뿌리소모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힘을 합쳤다. 일차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서산이라는 지역성을 배경으로 하며 지역주민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바다와 생태라는 키워드가 잡혔고 그 두 가지를 품고 있는 물범이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다.

6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8월 초에 물범을 만나러가기까지 두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바쁘게 일을 진행했다. 9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짧은 시간 안에 큰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속도감과 집중력이 필요했고 그러다보니 알아서 자신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됐다. 활동경력이 많고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각자의 노하우가 결합되어 큰 시너지를 냈다. 그 과정에서 치우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산이라는 지역성을 배경으로 하며
지역주민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바다와 생태라는
키워드가 잡혔고 그 두 가지를 품고 있는
물범이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다.



천천히 조화롭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권경숙 대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애초 염려와 달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점이 많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이전에는 서산에 있는 여성 소모임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 여성들의 힘을 확인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으면서 연대는 큰 용기를 얻었다.

모임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는 사업의 주요한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 중이다. 연대를 꾸리고 활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요구나 요청을 많이 해온다. 힘을 과시하거나 크고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조화롭게 역할을 찾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더 발전시켜 가리라 기대한다. 일시적이거나 드러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오래도록 견인해 갈 공정하고 착한 연대를 꿈꾼다.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 여성들의 힘을 확인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위) 서산풀뿌리여성연대의 실무브레인들. 김규리, 이윤진, 권경숙, 김수미, 조윤숙 (왼쪽부터)

아래) '충남여성풀뿌리소모임성장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발표하는 권경숙 대표

충남의 *Happy*한 변화를 위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성인지예산’이라고 한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화되었다. 개발원에서는 충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교육을 실시하는데, 2015년 교육에 참여한 도 예산담당관실 윤인원 주무관을 만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 알고 있었나?
오늘 어떤 일로 개발원에 오게 되었나?**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인지예산서 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늘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무교육을 받으러 왔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있었는데, 방문은 처음이다. 자연 속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오늘 모인 공무원들은 도와 각 시·군에서 성인지예산을 총괄하는 직원들이다. 각 사업부서에서 기초자료를 주면 그걸 엮어서 성인지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전문 강사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다. 개인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개별 사업에 성과목표를 잡는 일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오늘 구체적인 여러 사례를 들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실무적으로 많이 다듬어져 돌아가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웃음)

이런 류의 교육이 공무원들에게 실무적인 도움 이외에 의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폭력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일 년에 서너 차례씩 꾸준히 받고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교육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자꾸 받다보니 그 근본취지를 이해하고 내용을 수용하게 된다. 들을수록 일상적으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자극이 된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제안이나 남길 말씀이 있다면?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주로 젊은 공무원 가족들이 많이 내려왔다. 도시는 젊어졌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부분이 많다. 도시 전반에 여성정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비롯하여 어린이와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정책을 내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내포가 여성친화도시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성정책담당관과 우리 예산실이 서로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일하는 *Leader*’를 위한 프로그램 있었으면



지난 12월 개발원에서는 지역에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이주여성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모임의 역량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조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교육에 참석한 천안다문화가정협의회 총무 가메야마 씨를 만났다.

어떻게 다문화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나?

일본에서 왔고 한국에 온지는 23년 되었다. 처음 결혼해서 10년간은 아이 넷 낳느라 집에만 있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그래서 나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인 여성들을 수소문해서 만나기 시작했다. 마침 일본어강사로 사회생활도 시작하면서 생각도 많이 열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처음에는 주변에 마음 맞는 일본 사람끼리 교류하고 도움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정도였다. 그러다 천안지역에도 이주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협의회를 꾸리게 되었다.

주로 무슨 활동을 하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새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니깐, 5년 이상 지난 여성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보통 5~10년 정도 지나면 출산도 마치고 한국말도 익숙해지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럴 때 교육도 소개해주고 직장도 알선해준다. 최근에는 재능을 살려서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 교육은 못하고 다른 단체와 연계하거나 다리를 놓아주는 식이다.

자조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주여성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리더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나?

학교 자모회나 아파트 부녀회 같은데서 활동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표의 역할보다는 봉사나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은 일을 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거의 없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지역에 단체들은 많은데 서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없다. 만들었는데 잘 안됐다. 이주여성의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은 취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능력 있는 여성들이 다 일터로 나가고 지역에서 리더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우리 개발원이 이주여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제안해 달라.

이주여성들이 일도 하면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나 NPO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단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았으면 한다.

“함께 하는 마을 여성들 만나니 힘이 나요”

마을 여성들 한데 모여 '제1회 충남 플뿌리여성대회' 개최

“마을에서 우리만 외롭게 활동하는 줄 알았어요.”

서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비슷한 뜻을 갖고 마을 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3월 9일 오후 1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이 주최(후원 충남 지역언론연합)한 '충남 플뿌리여성대회'가 시작됐다. 주제는 '여성이 마을을 구하다!'였다.

충남 각 시군에서 마을을 구하는 데 동의하는 160여 명의 여성들이 자리를 꽉 메웠다. 주최 측 예상보다 참가자가 많았다. 당초 참가대상은 '여성들과 사귀고 일내는 것에 신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였다. 실제로도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농업, 학부모, 교육, 성평등, 일자리 등을 화두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다.

첫 순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마을을 가꾸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사례 발표였다. 홍성의 문화예술단체인 '때깎'의 황선미 대표는 '문화를 통한 지역 주민과 소통법'을 소개했다. 이 단체는 지역 마을 분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염색 공예를 지도하고, 지역 주민과 미술 전시회를 기획 전시했다. 지역 아동센터에는 미술체험 교육을, 마을주민들과는 벽화를 함께 그리기도 했다. 캐리커처 그려주는 주민들과 친밀감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마을 주민과 소통법’ 사례 발표

특히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맞춤형 패브릭 아트 사업은 회원들 간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황 대표는 "마을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법과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의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의 김성림 이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만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소개했다. 이 단체는 창작장애인들이 가사도우미 외에 일자리가 없는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다 '꾸러미'를 구성했다. 장애인들이 바느질을 배워 폐청바지 등을 활용, 앞치마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면 꾸러미 회원들이 이를 공동 구매했다.

'서천맛집 여행밴드' 홍선희 대표는 SNS를 통해 맛집을 소개하면서 마을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다. SNS(밴드)를 통해 다른 지역 빵집처럼 줄서서 먹는 맛집과 즐겨 찾는 여행지를 만들어 내는 게 홍 대표의 목표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부여 여성농민회(발표 김지숙 토종부주체)의 '토종 씨앗 지키기' 활동 사례는 많은 공감과 격려를 받았다.



서로의 활동을 나누는 ‘포스터 전시회’... 43개 팀 참여

이어 열린 참가자들간 포스터를 통해 서로의 활동을 나누는 '포스터 전시회'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이었다.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온 사진과 물품을 전시하고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날 전시 분야는 인권, 교육, 문화, 환경, 농업, 일자리, 사회참여 등 분야에서 모두 43개 팀이 참여했다.

한 참가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 너무 기쁘다"며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안성선 원장은 "풀뿌리여성대회를 통해 충남 여성들이 마을을 돌보고 가꾸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보다 넓은 자리에서 큰 나눔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어 "마을 단위 의미 있는 여성들의 소모임을 적극 발굴, 지원해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 2015.03.09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의 취재기사를 옮겨 실은 것입니다.
원문은 오마이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역량 키워주는 플뿌리자치학교

두 달 간 35명의 지역 여성리더들이 모여 분야별 이슈 해결방안 고민

2015년 ‘충남여성플뿌리자치학교’의 열기로 충남의 여
름이 뜨거웠다. 지난 7월 10일을 시작으로 두 달 간 매
주 금요일마다 35명의 지역 여성리더들이 모여 학구열
을 불태운 것이다.

개발원이 지역여성리더들의 지방자치 참여역량을 높이
기 위한 목적으로 문을 연 플뿌리자치학교에서 올해 첫
수료자들이 배출되었다. 교육과정으로는 민주주의와 시
민참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기본과정으로 구성되
었고 돌봄, 문화, 경제, 환경,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지
역이슈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들로 채
워졌다.

교육에 참여했던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 양수영 대표는
“플뿌리자치학교를 통해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활동
이 이루어져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
각한다”고 교육을 마친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교육의 열기는 9월 4~5일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1박
2일 워크숍에서 다시 모아졌다. 최은순 보령시의원(새
누리당), 민병춘 논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발
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의원
활동의 중요성을 발표하였고,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
보좌관(아산센터포럼)과 박영숙 이사장(청양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지역여성들의 언니로서 자신들의 지나온
활동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고민을 나누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 중 서산플뿌리여성연대 권경숙 대
표는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지역 발전에 의
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이 연대하
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역량이 무
엇보다 필요하다는 걸 절감한다”면서 여성들 간의 네트
워크와 임파워링을 강조했다.

나홀로 지역활동의 막막함이 함께하면 힘이 될 수 있음
을 서로가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안정선 원장은 장
기간의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했던 지역여성들에게 존경
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성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개발원과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
고, 만들어가자”는 당부로 긴 여정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플뿌리 자치학교는 올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앞으
로도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과 여성의 의사결정참여
확대를 위해 충남여성들을 임파워링하는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 활동을 모색해본 시간이었다.”



“

김치... 썰어 보셨나요?

”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로 가늠해보는 성평등

도저히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 논문, 도전해 봅시다.
알고 보면 유익하고 재미있는 논문 속으로 살짝 한 발, 더 궁금하다면
우리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치 썰어 보셨나요?” 우리 충남의 남성들은 청소나 돈 관리 같은 집안일은 비교적 잘하지만, 아이들 등교준비나 화장실 변기청소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안 하는 일이 바로 ‘김치썰기’라고 하네요.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김치,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기본 음식입니다. 담그는 일도 만만치 않지만 매 끼니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번 반복되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은 누가 하는지, 사소한 일상을 통해 성평등을 가늠해보는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기본과제 보고서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인식 및 생활실태 조사

김종철, 정숙정

“사적이고 실천적 차원의
성평등 실현 방안 모색”

성평등수준이 중하위권(12위)인 충남지역은 특히 가정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이 떨어지는 현실임. 따라서 가정 영역의 생활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사적이고 실천적 차원의 성평등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가 필요함.
(제1장 ‘연구 필요성’ 중에서)

“성평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어릴 적 가정교육”

성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어릴 적 부모님의 부부관계와 가정교육의 영향(27.20%), 학교나 직장에서의 교육의 영향(19.20%), 직장 동료,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영향(18.96%), 아내와 자녀 등 현재 가족 관계의 영향(18.32%),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영향(15.12%), 기타(1.20%) 순으로 나타났음.
(제3장 ‘성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중에서)

“피곤한 남성들,
시간도 의욕도 없다”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인식은 가정생활 영역 2.59, 학교생

활 영역 2.77, 직장생활 영역 2.58, 사회생활 영역 2.54로 학교생활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생활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음(4점 척도).

가사활동(노동) 참여 이유를 보면 아내 또는 가족의 요구 때문에(25.44%),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23.68%), 아내 또는 가족들을 돕고 싶어서(21.92%), 아내 또는 가족들이 바쁘기 때문에(16.32%),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므로(10.72%),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어서(1.44%), 기타(0.48%)의 순으로 나타남.

가사활동(노동) 참여 장애 요인을 보면, 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서(25.22%), 시간이 없어서(15.90%), 할 줄 몰라서(13.87%), 한 번 하면 자꾸 해야 할 것 같아서(13.54%), 다른 사람이 알아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11.19%),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3.65%), 도와주면 오히려 짜증내서(3.49%),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3.33%) 순으로 응답함.

(제3장 ‘분석 결과’ 중에서)

“성평등가정,
성평등 마을을 만들자”

농어촌 지역에 ‘성평등 인식 및 가사활동 촉진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여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 또한 중장년 세대 가족을 위한 젠더센터를 설립하고, 성평등 시범 가정을 선정하여 홍보함



“남성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문화 등 사회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번 조사 연구는 충남 성평등 정책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 또한 충남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체이자 성평등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충남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 가사활동 등 성역할, 생활실태, 사회의식 등을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성평등 정책 대상으로서 충남 남성의 의식과 삶을 자료를 생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흥미로운 결과들을 얻음.

남성들 간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는 성평등 의식과 가사참여의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임. 즉 계층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남성들이 성평등 실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향후 성평등 정책의 대상에 소외 계층과 인지적 소수자 집단의 남성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집단의 특성별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음.

가령 기업체 유치 지역 근로자 집단은 긴 노동시간, 육체적 피로의 과중으로 가사분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적 과제이며, 농어촌 고령 집단의 경우 뿌리 깊은 가부장적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스스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함.

1990년대 후반부터 지자체에서는 성평등 의식 교육을 위주로 남성의 성평등한 참여를 촉구하였으나, 성평등 의식 함양 뿐 아니라 의식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제4장 '의의 및 향후 과제' 중에서)



[언론 보도]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 남성의 성평등 의식 향상... 가사노동 실천 필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올해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충남 20대 이상 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은 가정생활 영역이 4점 만점에 2.59, 학교생활영역이 2.77, 직장생활영역이 2.58, 사회생활 영역이 2.54로 나타나 충남 남성들의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이 낮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충남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이유로는 아내 또는 가족의 요구 때문에(25.44%), 나 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23.68%), 아내 또는 가족들을 돕고 싶어서(21.92%), 아내 또는 가족들이 바쁘기 때문에(16.32%),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므로(10.72%),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어서(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주관한 김종철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방문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중장년 세대의 남성, 부부, 가족을 위한 센터의 설립 운영, 6인이상 거주 가구의 성평등 시범 가정 선정 및 홍보 등의 정책 제언을 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성평등 사회가 되려면 남성들의 의식 향상은 물론 가부장적 의식의 극복, 성평등 생활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스충청인 | 2015.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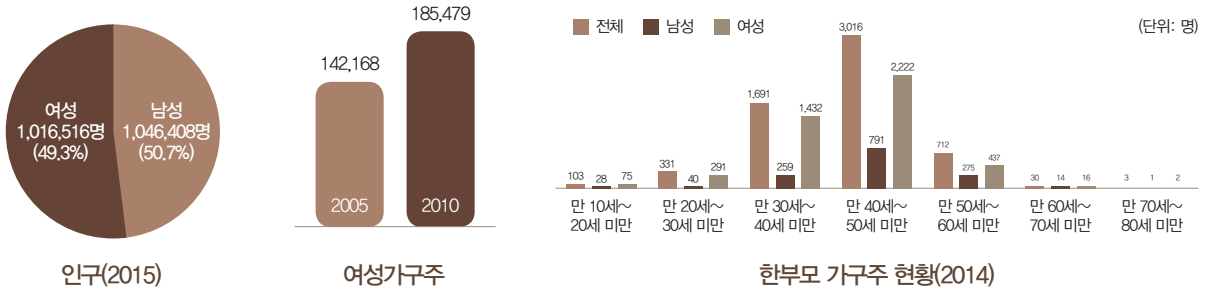
충남여성정책 2015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충청남도 여성들의 삶 - 인구 및 세대

“여성가구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높아 모자가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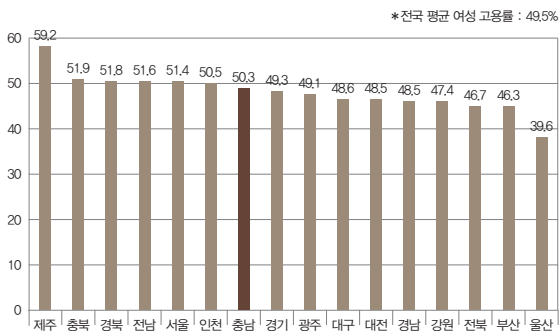


- 2014년 여성가구주는 총가구수의 24%로 전국평균(29%)보다 높음
- 한부모 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3배 이상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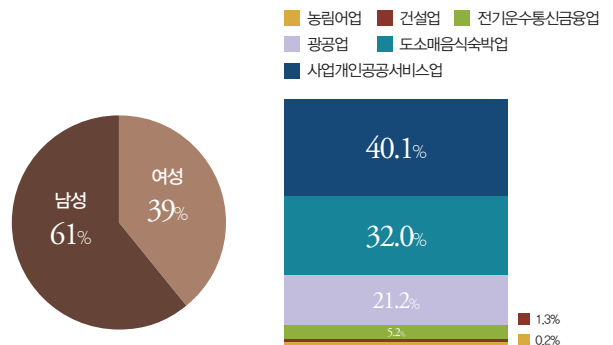
경제활동

“충남여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남성보다는 20% 이상 낮으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충남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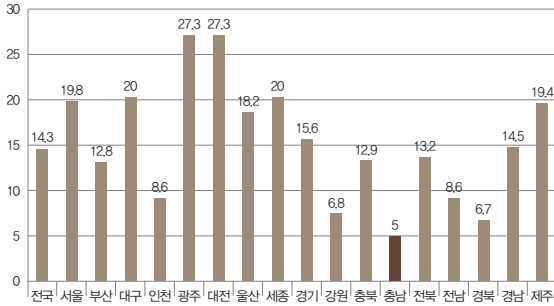
산업별 여성종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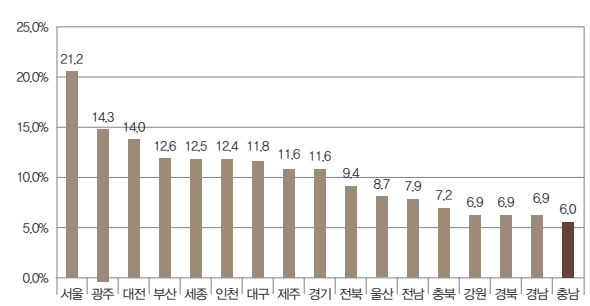
정치·사회참여

충남여성 의사결정 참여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광역의회 당선자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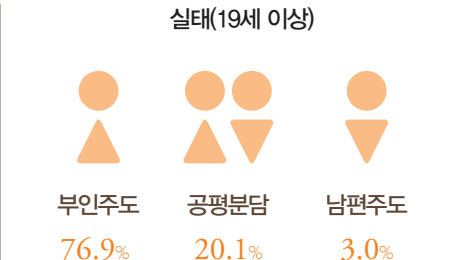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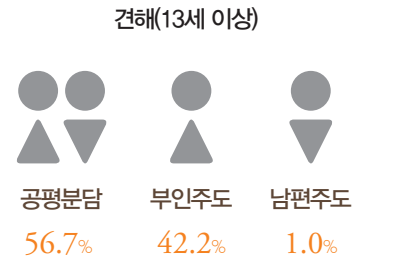


-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여성당선자는 0명, 도의원은 2014년 40명중 2명(5%), 시군의원은 169명중 40명(23.7%)로 전국 평균 아래이거나 최하위 수준
- 충남도의 경우, 전체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8.9%이지만, 5급 이상 여성의 비율은 5.6%로 전국 최하위

가사노동

“가사노동은 여성이 혼자서 전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어졌다”

가사노동에 대한 견해와 실태



가사노동시간



자료 : 국가통계포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충남사회지표조사 등 / 자세한 내용은 젠더브리프 13,15,16호



2015 충남여성정책

“여성정책개발원? 뭐하는 곳인지?”, “이런 거 연구해서 어디에 활용하는지?”, “이런 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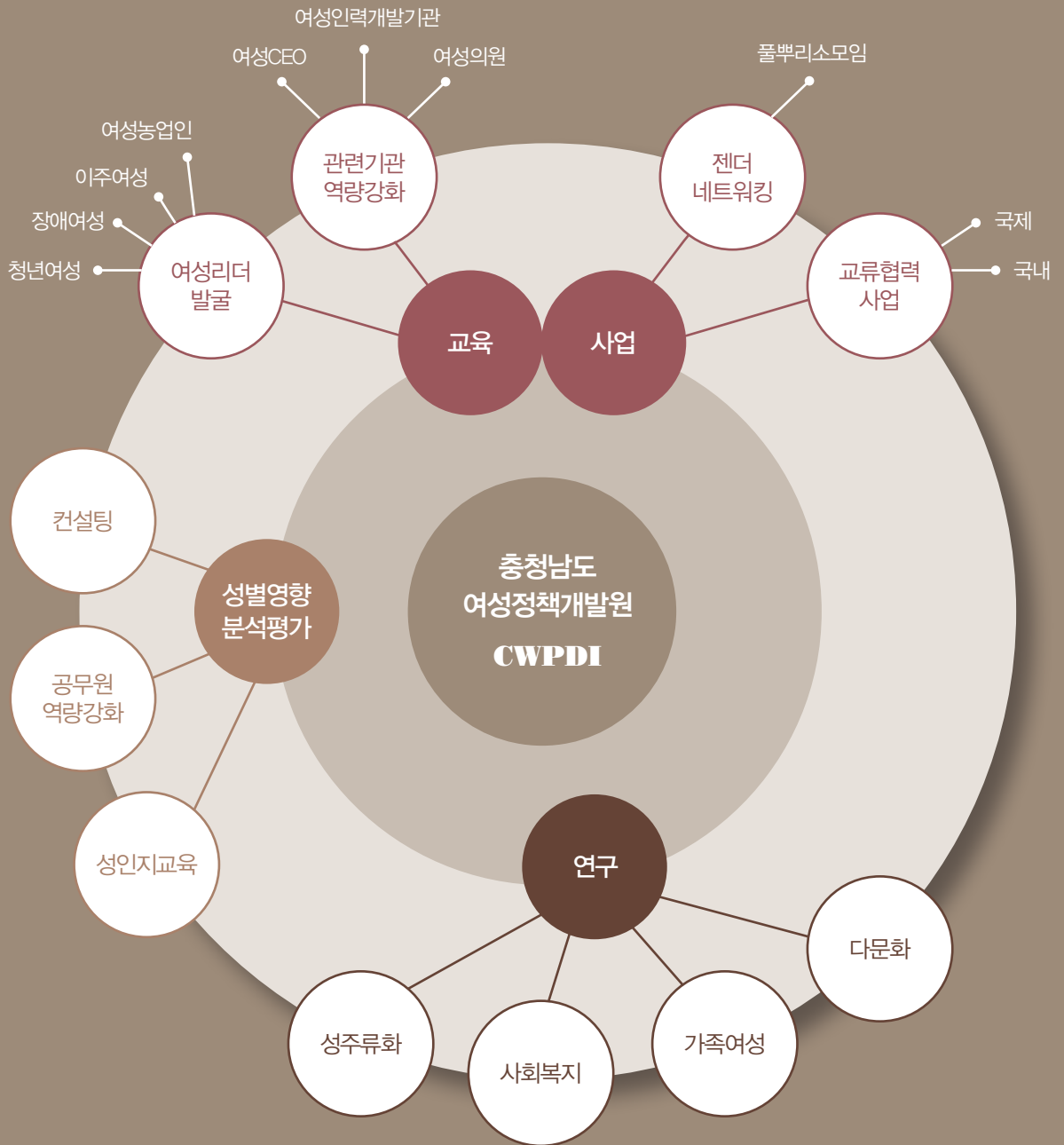
개발원이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더 부지런히 도민들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여성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 공감을 얻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에 기초한 행복한 복지사회구현’, ‘다름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실현’을 목표로 충남의 여성, 가족,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두뇌기관이자 교육기관입니다.

정책개발과 교육을 통해 청년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비롯해 우리 충남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매개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변화가 지역의 발전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확산되어 충청남도가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이러한 노력은 충남 여성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모두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손에 안 닿던 문의 잠금장치가 아래쪽으로 옮겨진 이유는?

연구원들이 전해주는 여성정책개발원 이야기

일 많기로 소문난 개발원이지만
정작 하는 일이 뛰나는 질문을 계속 받는다.
열심히 일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세상과는 동떨어진 연구를 한 것일까?

2015. 11. 18(수) 16:00~18:0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소회의실

김영주 정책연구실장

최은희 연구팀장

태희원 교육·사업팀장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영주 올해 우리 개발원에 좋은 일들이 많았다. 대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연구원들 개인 신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결혼, 임신, 출산이 유난히 많았던 해였다. 우리 개발원의 업무 특성상 연구원의 개인적인 경험은 과제에 더 밀착하여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임우연 출산은 기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이다. 우리 개발원의 과제나 업무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었나 돌아봐야겠다.(웃음)

김영주 올해 개발원의 가장 큰 변화라면, 그전 시기와 비교해서 도민, 특히 충남여성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점이다. 접촉면을 많이 찾아냈고 그 접촉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많이 반영되었다.

개발원의 2015년

최은희 연구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그동안은 과제 주제에 따라 각자 알아서 진행했다면, 이제는 평가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연구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도나 정책담당자 등 다양한 영역들과 접촉을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성과보고를 하도록 하는 체계가 생겼다. 성과보고에서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과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본다. 내년 정책과제를 살펴보니 청년, 가족, 여성, 다문화, 장애 여성이 대상이더라. 주제는 주로 일자리다. 장애부모의 자녀나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 등 자녀지원 부분이 새로 등장했다. 주제나 대상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년 거의 비슷하지만 도의 정책이나 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얼마나 진전된 연구성과를 내놓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태희원 올해도 교육·사업팀은 굉장히 바빴다. 작년보다 지역간담회를 많이 했다. 곳곳에 전화도 하고 섭외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좀 걱정되기도 했다. 사실 지역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라고 오라 가라 하면서 학습을 해주겠다,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게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막상 지역에 가보면 다른 느낌을 받는다.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을 통해 사람들이 연결되어 공감하면서 결국 풀뿌리여성대회까지 이어지게 됐다. 타 지역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연결시켜 준 것이 우리가 한 일이다. 풀뿌리인큐베이팅 사업의 경우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서 주제를 정하고 실천해나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장기교육으로 풀뿌리자치학교를 진행했는데, 향후 역량을 키운 여성들이 시군 위원회에 진출하여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성과와 의미를 좀 더 다듬어 지역에서 계속 확장돼 나가도록 할 것이다.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된지 몇 년이 흘렀다. 2011년 관련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올해는 이 제도의 연착륙을 가능할 수 있는 시기였다. 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의식이나 관점의 변화가 도정 전반에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 예산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정도는 확보된 것 같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시군까지 포함해서 인적대상 사업 안에서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아졌다. 농촌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의 참여도와 교육 만족도를 반영하여 시군단위에서도 교육의 성격이 많이 개선되었다. 또 공공기관 시설물의 경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돕도록 개선되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설계단계부터 반영이 돼서 유지·관리되는 부분이 포착되고 있다.

최은희 교육·사업팀의 사업흐름에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도 정책과 연결된 분야의 대상들과 관련된 교육 사업을 주로 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상담사나 방과후교사처럼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풀뿌리 지역여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가장 큰 변화라면,
도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점이다. 접촉면을
많이 찾아냈다.

김영주 정책연구실장



태희원 교육·사업의 성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 같은 기관에 대한 요구가 달라진 것이다. 실무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가 많이 생겨나니 우리가 지 그런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성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나는 근본적인 고민에 맞닥뜨리면서 방향성에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책반영 성과 알릴 홍보전략 필요해

김영주 우리가 외부로부터 늘 받는 질문이 있다. “이거 연구해서 어떻게 활용하나?” 또는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된 게 뭐 있나?” 이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나는 지역의 여성들도 늘 그 점을 궁금해 한다. 이게 정책에 반영은 되는지. 그럴 때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스스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최은희 이슈화를 시켰느냐가 포커스인 것 같다. 다른 연구원과 전략

도의 정책이나 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얼마나 진전된 연구성과를 내놓느냐의 문제다.

최은희 연구팀장

과제를 같이 했는데, 그쪽은 보도자료를 엄청나게 내더라.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도 여러 번 공식화시켜 이슈화하고 홍보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제를 한 것으로 끝이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쪽은 정책반영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였다.

김영주 일 자체의 성과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우리 개발원이 그런 점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의 업무나 성과를 잘 알리지 못해서 정책반영이 잘 안되었다는 오해를 받는다.

최은희 그렇다. 반영을 다 하는데도 우리가 관리나 이슈화를 못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2016년은 ‘보도자료 활성화, 정책반영 환류시스템구축, 전략과제 이슈화’ 이 세부분이 과제다. 특히 전략과제처럼 중요한 부분을 이슈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때로는 우리의 관점과 달리 사회적 관심 때문에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우리의 의제로 함께 가져가는 순발력도 길러야한다. 언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책의 흐름을 이슈화시키는게 더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 흐름에 맞춰 맥락을 짚어야한다.

태희원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과 충남도 정책을 우리 과제와 연계시켜서 이슈화하고 알리는 방식으로 가자. 또 정책반영 성과를 제대로 리스트로 만들자.

임우연 과제에 쫓기다보면 개별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어렵다. 공동작업의 필요성이 있다. 과제를 마무리할 시기에 다 같이 모여서 점검하고 아웃풋을 자료화해서 의회나 관련기관에 보내고 언론에도 홍보하자.

최은희 성과보고회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올해 해당되는 것은 올해만 반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이나 그 후년에 시의에 맞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줘야 한다.



현안 정책과제는 바로 적용되지만 기본과제는 그렇지 않다. 기본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투여하는 에너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는 연구원이다. 우리 역량을 연구 쪽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언론홍보 같은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주는 파트가 있으면 좋겠다.

김영주 연구에 집중하고 성과를 그 다음 연구로 이어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못시켜 본의 아니게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다. 그때그때 연구 과제나 사업을 홍보하고 정책반영에 관한 부분도 자료로 만들자. 우선 정책반영 성과를 리스트업하고 정책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지난 과제들 중에 올해 반영된 것들도 찾아서 그 부분을 명시하자. 우리 과제를 이해시키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각도에서 어필할 방법을 고민해서 제대로 대응하자.

피곤한 양성평등? 알고 보면 재미있다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내년 과제는 정책개선 효과를 조금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개선의 효과는 있겠지만, 분석평가를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늘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고 심화되고 있는지 조금 회의가 든다. 분석평가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최은희 양성평등의식, 인권의식, 성인지적 감수성은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 교육을 해도 한 사람의 생애에서 기초부터 단계별로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체계가 없다.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고 지침을 보며 업무를 수행

하는데, 의식은 지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제일 어렵다. 그걸 해내는 게 우리의 몫이다.

임우연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미션이 분명히 보인다. 우리는 행정 담당자들과 접촉하는데, 도청공무원부터 전 시군의 공무원 수가 엄청나다. 그들에게 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미션이다. (웃음)

최은희 양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배워야 한다.

태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사례 중에, 문의 잠금 장치가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들은 불편하니 그걸 아래로 내려달라 사례가 있었다.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다. 인식개선은 어렵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을 쥐어주고 만질 수 있게 해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 같은 기관에 대한 요구가 달라졌다.

태희원 교육·사업팀장



욕먹을 용기

태희원 지난 풀뿌리자치학교에서, 마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장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여성들이 나서서 결정과정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설친다고 욕먹는다고 웃어넘기더라. 그런데 조금 있다 어떤 분이 선언을 하듯이 말했다. “이제부터 욕을 먹겠어.”(웃음) 일상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마을이나 가정에서 매 순간 갈등하며 고군분투한다. 그런데 마음이 썩어가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것보다 욕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런 용기가 힘이다.

최은희 남성대상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고의보다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다.

태희원 인간은 자기 생활능력이 있어야 한다. 밥 먹고 닦고 자는 일상적 활동을 부당하게 한쪽에만 의존하면 문제가 생긴다. 가족구성원들에게 그것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분열상태에 이르기도 하는데, 일상을 평등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욕먹을 용기가 필요하다.

임우연 남성들도 아버지 세대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한다. 여성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소통하는 게 역시 쉽지 않다.

최은희 개인의 문제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나의 경우 동서들이 나로 인해 집안에 양성평등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웃음) 그런 기대가 있더라.

임우연 가사나 육아에 있어 평등하게 배분해서 주도적으로 살아야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그게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가족들의 문화를 바꾸기도

한다. 집안에서 가사 일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이나 가치 판단을 해야 할 때, 여성연구원에서 일하지 않은 여성들 보다는 내면의 갈등이 더 많다.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움츠리는 부분도 있다. 이런 선택이 내 지향과 가치를 저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김영주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을 보나 장기적인 흐름을 보아도 패러다임 자체는 ‘젠더 이퀄리티’ 즉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른 어떤 연구 분야보다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시비에 휘말리기 쉽다. 개인적으로도 거칠거나 썩 보이진 않나 하고 의식한다.(웃음) 우리가 하는 일을 도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기 위해 연구나 교육 등 본연의 임무 이외에 부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가 많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우리의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2016년에도 최선을 다하자. 🌈👏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개선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늘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2015년 충남여성정책 성과보고

연구과제
교육·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2015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이슈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 여성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성의 현실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정책 제안을 위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기본과제 8

- 충남 이주민통합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전략과제)
- 충남의 노인 돌봄 인력 실태 및 통합적 지원 방안(전략과제)
- 성인지 관점에서의 충남 주민자치회 참여 실태 및 개선방안
-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 충청남도 장애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충남 여성 빈곤층의 자활기업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충남 6차산업의 여성참여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연구 -충청남도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12

- 충청남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2014년 의원발의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 충남 시·군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분석
- 다문화가정 초등학령기 아동 사회성, 정서 측정 조사지 개발
-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기능 재정립 방안
-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집
- 충남 농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활성화 방안
- 충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방안
- 충청남도 예비부부 특화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 충남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양성사업 개선방안
- 이주민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안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충남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 장애인 인권수준 측정 기준마련 연구

충남 이주민통합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우복남, 장철원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 및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외국 출신 이주민들의 통합관련 현실과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충남지역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정책제언

주민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제

- 일반인 대상 이주 인권의식 교육/홍보 확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개정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제

- 해체/위기 다문화가정, 취약 다문화 한부모 가족 실태 파악 및 건강, 주거, 취업, 자녀 등 종합적 지원 강화
- 이주여성 인권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인권 교육 강화
- 결혼이주여성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및 관련 위원회 참여 실질화
- 주기적 다문화가족 인권실태 조사
-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제

- 외국인 근로자를 정책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담당 부서 업무내용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명시
- 도 단위 다국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 주기적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생활실태 조사 실시
-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대상 외국인고용 관련 법제도 및 근로자 문화이해교육 확대

충남의 노인 돌봄 인력 실태 및 통합적 지원 방안

송미영, 김희경

충청남도도는 전국 평균보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충청남도 노인 돌봄의 사회적 권리보장과 돌봄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인돌봄인력의 근로실태를 지역별, 운영주체별로 파악하여 충남 지역 노인 돌봄 인력의 통합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충청남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방안

- 자원대책의 수립, 요양보호사의 인권 및 안전 보장, 후생복지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

장기적인 관점의 충남 사회적 경제 노인 돌봄 모델

- 돌봄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서약을 하며, 이를 달성하면 공공기관에서 보상

단기적 관점의 노인 돌봄 운영주체별 지원방안

-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 차원 및 지자체차원의 지원 정책이 요구됨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이동지원
- 지역 특성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요양보호사 양성

노인 돌봄 인력을 위한 근로환경 가이드라인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근로기간 명시 및 기관차원에서 이용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함

노인 돌봄 인력의 고충처리 통로 구축

- 가칭 '노인돌봄인력센터' 등과 같은 조직이 필요함

성인지 관점에서의 충남 주민자치회 참여 실태 및 개선방안

안수영, 김종남

생활자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자치의 호혜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마을 주요 현안의 의사결정자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성인지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도내 주민자치회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적 역할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성인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성 보완

-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서 성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의무 조항'으로 제시되어야함.
- 주민자치회 참여 경로는 기존 마을네트워크를 통해 추천·선임되는 관습적 경로이외에 '주민대표 공모 절차'를 통해 여성들의 주민자치회 진입이 보다 확장되어야 함

주민자치회 위원의 성평등 역량강화와 성장 지원

- 주민자치회 현장과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과 '마을 단위 풀뿌리 자치학교 교육' 강화가 필요함.

주민 친화적 의견 수렴과 마을 거버넌스 구축

- 제도화된 주민자치 행정과 명예직 자원봉사로서 주민자치회 활동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행정부서간 일상적 업무 협의와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이 보다 촘촘히 구축되어야 함.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김종철, 정숙정

남성은 경제활동, 여성은 가사활동이라는 분업화된 성역할 모델이 변화되어 이제는 남성에게도 경제적인 역할 뿐 아니라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가사와 육아의 분담과 참여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남성의 성평등 의식 수준과 가사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충남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

농어촌 지역 방문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농어촌 지역 방문 성평등 의식 및 가사활동 촉진을 위한 강사 양성 및 가정 방문 교육
- 농어촌 지역 방문 성평등 의식 및 가사활동 촉진을 위한 연극단 혹은 인형극단 구성 및 운영

중장년 세대의 남성, 부부, 가족을 위한 센터의 설립

-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의식 교육, 가사요리실습
- 남성의 자살, 성폭력, 가정 폭력, 중장년 남성의 위기 등에 상담, 교육
- 부부·자녀·가족관계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세대 이상 혹은 6인 이상 거주 가구의 성평등 시범 가정 선정 및 홍보

- 3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시범 가정의 선발 포상
- 3세대 가구 남성 가장을 대상으로 한 요리·가사 참여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 장애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최은희

본 연구는 이중차별에 노출된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회 제공 및 취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충청남도 내 장애여성의 경제활동현황과 충남도내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정보 자료 구축, 더불어 충청남도 취업장애여성의 취업관련 경험과 욕구를 분석하여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장애여성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장애여성 근속장려금 지급
- 기업체 장애여성 고용률 더블점수제 도입
- 양육 장애여성 기초생활수급권 박탈 유예제도 도입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기반 구축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확대
- 장애인 고용-복지 사례관리센터 설치
- 충남 장애인맞춤형 직업훈련기관 운영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장애여성 창업지원

장애인고용 정책통합추진체계 구축

- 장애인고용 관계 부처간 통합추진기구 설치
- 장애인 직업훈련기관간 연계체계 마련

장애여성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실시

- 동료상담사 양성 및 서비스 지원
- 장애여성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장애인 관련 인식개선 사업 실시

- 장애인채용박람회 실시
- 기업체 실무자 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충남 여성 빈곤층의 자활기업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안수영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여성 빈곤층의 자활기업 참여 실태와 근로 특성을 파악하여 현장의 시각과 수요에 기초한 자활기업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제언

충남도 자활지원조례 제정

- 지역 단위에서 정책 추진의 근거와 실제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 토대 구축이 선결적 과제임

자활기업 참여 확대와 생활임금 정책 추진

- 개별급여제도 홍보 강화 : 자활기업 참여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자활기업이 여성에게 보다 생산적 복지 도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달경로의 다각화를 통해 변화된 제도에 대한 노출빈도 강화와 생활권 중심의 정보 접촉면 확대가 필요함
- 생활임금 정책 도입 추진 : 고용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 뿐만 아니라 노동 지속력을 높임, 노동 친화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조치임.

자활기업 성공의 충남형 루트 찾기 협업모형 개발

- 추진방향 : 자원 네트워크 집적화 · 고도화
- 추진방식 : 자활과 사회적경제 역량시스템 연계
- 정책방안 : 자활기업의 사회적 정체성과 성과 지속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사회적 성과나 정체성 희석 위기 보완) / 탄탄한 인큐베이팅(사전 컨설팅, 의무교육 이수 요건 설정) / 자활기업 직무교육(강사파견, 훈련 매뉴얼 제공) / 규모화 협업(창업 적정인원 확보, 법인화)
- 추진기관 : 광역 · 지역자활센터-업종별 협의회-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 정책부서 : 충남도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

충남 6차산업의 여성참여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김종철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서 6차산업의 비중과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여성의 주도적 참여가 6차산업의 정착과 성공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제언

6차산업 설립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 두레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맞춤형 지원

6차산업 유형화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 '1차·2차' 중심, '1차·3차' 중심, '2차·3차' 중심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6차산업 가족경영 지원 시스템 구축

- 6차산업 가업 승계/참여를 위한 멘토-멘티 지원

6차산업 자금 지원 방식의 개선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의 구축

6차산업 인증 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할당제

여성 주도 6차산업 경영 사례집 발간

6차산업 등 복합적 행정 민원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

도청 6차산업 관련 부서 간 업무 협력 시스템 구축

6차산업 업체 중심의 시군별 중간지원 거점 센터의 육성

소규모 농가공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관광자원과 6차산업 업체와의 관광 연계 코스 구축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연구 – 충청남도 사업을 중심으로

임우연, 이경하

현재 충청남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로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취지에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가고 있으나, 제도가 질적인 성장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실적 제고 및 환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제언

공무원의 참여 및 책임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실무협의체 운영
- 개선 실적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표창
- 사업분야별·국(실)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워크숍 실시를 통한 역량강화
- 사업분야별·국(실)별 대면 컨설팅 정례화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도 제고

- 사업분야별 주요 관련 성인지 통계 생산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성인지 통계 활용 의무화

컨설턴트 역량강화

- 공모를 통한 컨설턴트 선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개선 활성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전문 인력 배치
- 국(실)별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이행 실적 보고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을 위한 별도예산 책정

성과 가시화 및 정책체감도 향상

-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효과 분석 관련 연구 추진

충청남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 2014년 의원발의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임우연

충남도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검토를 실시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원발의 제·개정 법률안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자치법규가 입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평등한 내용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정 초등학령기 아동 사회성, 정서 측정 조사지 개발

우복남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사춘기 혹은 청소년기 특유의 어려움에 다문화적 특성이 더해져 정서적 어려움과 행동상의 문제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집단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능력과 사회성 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는 필요시 조기개입을 통한 효과적 치료개입 가능성을 보여줌.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현장에서 초등학령기 아동의 사회성·정서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의 환류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이 가능한 사업효과 측정 조사문항을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함.

충남 시·군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분석

김영주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차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정책 수립과 추진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음. 또한, 시군의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부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도내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기능 재정립 방안

송미영

현재 충남은 각 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지정 운영되고 있어 두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 및 임무 등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는 충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질 향상을 지역사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집

임우연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도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목적은 정책이나 법령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평가하여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임. 본 사례집은 시군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과제 발굴 독려 및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및 환류 확산을 목적으로 함.

충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방안

조윤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음. 현재는 광역새일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에 14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충남은 2015년 홍성새일센터가 신규 지정되어 현재 일반형 8개소, 농촌형 2개소, 총 1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 방식, 보유 인프라, 업무 노하우 등에 차이가 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일센터의 고유 기능과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센터차원에서 부딪히는 한계점 등을 제시하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개입·지원해야 할 부분을 제언하고자 함.

충남 농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활성화 방안

태희원

농촌형 새일센터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연계, 창업모델 구축 등을 미션으로 가지고 있으나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큼. 본 연구는 충청남도 및 군 지역(부여군과 홍성군 중심) 일반적인 인구 특성과 산업별취업인구 현황,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인구 현황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농촌 지역 여성 일자리의 특성과 여성 농업인의 정책 욕구, 일자리의 지향점 등 파악과 고찰을 통하여 농촌형 새일센터의 취·창업 지원 전략과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충청남도 예비부부 특화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최은희

충남도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도 특화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비부부 또는 부부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변화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부부교육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비부부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비부부교육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충남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양성사업 개선방안

우복남

충남도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다문화가 영하고,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강사파견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각 지역에서 양성되는 강사들의 역량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정책추진 현장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음. 이와 같은 현장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 본 정책과제에서는 충남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양성사업 운영의 제 측면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충남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방안

송미영

본 과제는 충남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에 초점을 두고,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과 기타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운영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활동·보호·보호 체계 구축과 건강한 성장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음.

이주민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안 -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채민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의 목표, 내용, 대상, 방법 등에 있어 정책의 수혜자인 이주민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충청남도 장애인 인권수준 측정 기준 마련 연구

최은희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보장책뿐만 아니라 지방적 차원의 미시적인 보장책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보장의 책임이 지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적 차원에서 인권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 분야에서도 차별과 권익증진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지방적 차원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는 제도적 접근이 있긴 하지만 그 실질적 이행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과 사업을 분석함. 더불어 충청남도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이 있음.

교육 · 사업

지역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교육과 지역별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풀뿌리자치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여성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여성리더교육

- 여성풀뿌리자치학교
- 이주여성 리더양성교육
- 여성장애인 리더양성교육
- 차세대 여성 리더양성교육
- 여성농업인 리더양성교육

여성관련기관 역량강화 지원

- 여성의원 워크숍
- 여성관련기관 CEO 워크숍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교육
- 여성친화도시 지역 워크숍

젠더네트워킹

- 여성 풀뿌리 조직 운영 컨설팅
- 여성단체 인큐베이팅
- 지역 여성 소모임 간담회
- 충남 풀뿌리여성대회
- 시군 여성정책부서와의 간담회
- 언론사와의 간담회
- 도 유관부서와의 정책협의체 운영

대외교류협력

- 연변조선족자치주
- 한국복지분권협의회

세미나&포럼

- CWPDI 포럼
- 개원 16주년 기념세미나

지역여성리더 교육

'2015 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 1기 수료생 배출



2015년 7월 10일부터 9월 4,5일 리스스파캐슬에서의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 전 과정이 마무리됐다. 교육생 37명에게는 1기 수료의 명예가 주어졌다. 교육과정으로는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기본과정으로 구성되었고 돌봄, 문화, 경제, 환경,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지역이슈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교육생들은 교육 종료 후 자발적으로 1기 모임을 결성하였다. 향후 이들이 활동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원은 수료생들을 충남도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심화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



10월 23일(목)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차세대여성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여성주의 및 인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작년부터 본원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도립대의 여대생들 31명이 찾아온 것이다.

교육과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법' 그리고 '선배와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여성주의라는 새로운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갖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허승우 운영위원(풀뿌리연구소 이음)은 이들에게 지역의 중요성과 공존의 가치를 설명하고 향후 자신의 일과 삶을 계획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과 청년들의 참여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여성장애인 리더교육



9월7일(월) 본원 대강당에서 여성장애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리더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 '2015 여성장애인리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전장애인지립생활대학 김현영 학장의 '사랑과 일(Liebe und Arbeit)'이란 주제의 강의에 이어 논산시 놀미중증장애인지립생활센터 차경선 소장과 한뼘인권행동 박세레나 대표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다. 또한 가치교육연구소 황금명륜 대표의 '여성장애인 긍정의 날개로 날다'라는 주제로 긍정의 리더십 교육이 있었다. 본 교육을 통해 충남 여성장애인들간의 소통의 네트워크 및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청남도 여성농업인리더교육



11월 24일(화)과 12월 1일(화)에 덕산리솜스파캐슬과 부여고도문화센터에서 여성농업인리더교육이 진행되었다. 농촌사회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여성핵심 리더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길성 회장은 '시대흐름의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삶'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참여를 당부했고, 성인지예산전국 네트워크 임원정규 사무국장은 '여성의 눈으로 보는 농업정책'에서 여성리더십은 미래산업 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주여성 리더교육



12월 5일(토) 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초기정착을 위한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톡톡히 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체로 그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어르신 봉사, 자녀 교육, 다문화 강사, 지역사회 캠페인 참여 등 모임에 따라 그 활동 내용도 다양하다. 또한 개별 자조모임들은 출신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는 이주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교류하고 연대하고 있다.

여성관련기관 역량강화 지원

2015 여성의원 워크숍



4월 29일(수) 본원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여성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 6기 여성의원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의정활동력 함양과 본원과 의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안정선 원장은 환영사에서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력이 힘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워크숍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장래숙 연구원은 '조례제정과정 및 발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이슈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지역여성의 삶과 요구를 고려한 정책 사례를 들어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에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의제 발굴과 이슈화, 의제 형성, 발의 등의 입법 활동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서 '5분 발언 쓰기과 활용'이란 주제로 발언자료 작성 방법에서부터 말하기, 보도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충청팀장이 진행하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워크숍에 참석한 여성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



2월 6일 충청남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리자 및 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지역별 구인처 및 구직자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는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많은 시군이 농업에 기반 한 산업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형 지역의 경우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농촌형 지역은 6차 산업 중심의 농촌 특화형 일자리 창출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여성인재아카데미(민간기업, 공공기관) 교육



7월 8일(수)~9일(목) 이틀과 14일(화)에 본원 세미나실에서 '2015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이 실시되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일과 삶, 비전과 목표, 개인과 조직 내 성장에 대한 효과적 이해를 기반을 둔 통합적 역량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충남 도 내 민간기업 중간관리자 13여명과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19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손 Job Go! 꿈 Job Go!' 여성인력개발관련기관 실무자 교육



4월 28일(화)~29일(수) 아산 외암민속마을 외암강당권역에서 여성인력개발관련기관 실무자 교육이 진행되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방법 및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해결 기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각 시군의 여성인력개발관련 기관 실무자 22명이 참석하였다.

'여성인재아카데미(공공기관 II)' 교육



9월 10일(목)에 본원 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 대상으로 '2015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이 진행되었다. 여성중간관리자들이 겪어야 하는 일과 삶, 비전과 목표, 개인과 조직 내 성장에 대한 효과적 이해를 통한 통합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충남 도와 세종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15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역 워크숍’



9월 17일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여성친화도시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방법을 공유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 담당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도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은 당진, 아산, 보령, 태안, 홍성 등 5곳이며 논산과 청양이 지정 준비 중으로 이날 워크숍에는 시군 계장과 업무담당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대표, 여성친화도시 추진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보령시 사회복지과 김옥경 주무관은 주민의 삶을 돌보는 지역사업 발굴 사례로 “나홀로 여성노인 동거동력 생활방” 사례를 소개했으며 시흥시 여성가족과 정시영 주무관은 “시흥시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성과”를, 장미현 젠더공간연구소 소장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콘텐츠 발굴”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젠더네트워킹

충남 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 프로젝트”협약식



본원은 도내 여성 풀뿌리소모임을 육성하고자 “충남 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6월 5일 오후 1시 30분 4개 모임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내 여성 풀뿌리소모임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18개 여성 소모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청양 행복여성네트워크(여성, 부엌에서 지역과 세상을 보다), 서산 풀뿌리여성연대(가로림만, 물범을 만나러가요), 즐거운 서천을 꿈꾸는 여성연대(풀뿌리 여성들의 Talk & Cinema), 부여 토종종자 지킴이(토종종자 지키기) 4개 모임이 선정되어 각 300만원 한도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충남여성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결과보고회



5월 지역 여성 소모임을 육성하고자 <충남 여성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를 시작, 10월 27일(화) 각 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공모사업에는 <청양 행복여성네트워크>, <서산 풀뿌리여성연대>, <즐거운 서천을 꿈꾸는 여성연대>, <부여군 토종종자지킴이> 등 네 개 모임이 참여했다.

안정선 원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여성들이 ‘공동 기획자’가 되어 지역 이슈와 자원을 탐색하고 작지만 해결점을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의 작업들을 모색하고 기획하고 실행해나가면서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원은 내년에도 지역 여성풀뿌리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언니들과 함께 하는 여성풀뿌리 조직운영 컨설팅’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풀뿌리소모임을 위한 조직운영 컨설팅이 11월 30일 오전 9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본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 많은 여성들이 더 오래 만나면서 ‘신나는’ 일을 도모하려면?”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이번 행사는 “언니들과 함께 하는 여성풀뿌리 조직운영 컨설팅”을 테마로 진행되었다. 마을, 문화, 농업, 먹거리, 교육, 일자리,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모임을 꾸려 활동하는 여성들이 가진 질문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이다.

이 날 행사에 ‘언니 컨설팅트’로 참여한 민양운 풀뿌리마을숲 대표와 최선희 아산풀뿌리여성연대 대표는 본인들의 마을살이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지역 여성들의 필요와

바람,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인들이 모여 소모임이 탄생하지만, 그 모임은 여성들의 생애주기, 위치, 상황에 따라 성장과 소멸, 전환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들을 때로는 신나게, 때로는 느긋하게 함께 할 여성들의 연결망이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16년도에도 여성 풀뿌리 선진지 탐방, 여성단체 인큐베이팅·역량강화, 풀뿌리 조직운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컨설팅에는 2015년 개발원 여성단체 인큐베이팅 선정모임인 서산풀뿌리여성연대,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 즐거운서천을꾸꾸는여성연대, 부여군토종종자지킴이 회원들과 관심을 가진 도내 여성들이 참여하여 소모임 결성과 이슈 발굴, 사업 기획, 조직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점에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풀뿌리소모임 간담회



각 시군 풀뿌리 소모임들의 활동 공유와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성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4년 아산, 홍성, 공주, 당진, 예산, 서천 간담회에 이어 2015년에는 상반기 3곳, 하반기 2곳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2월 23일 서산, 2월 26일 청양, 2월 27일 천안, 6월 3일 부여, 10월 15일 논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개발원의 연구 및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역여성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본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여성과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제1회 충남 풀뿌리여성대회



3월 9일 제1회 충남 풀뿌리여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부터 각 지역 여성들이 직접 행사의 기획에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성, 마을을 구하다!”라는 올해 주제도 지역 여성들이 회의를 통해 선정했다. 내가 살아가는 삶터인 마을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여성들이 중요한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날 행사에는 문화예술, 농업, 학부모, 교육, 성평등,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풀뿌리 여성들 150여명이 참여했고 50여개의 활동 포스터가 전시되었다.

홍성의 문화예술단체 때갈 대표 황선미씨는 캐리커처와 마을 꾸미기 등을 통해 지역 주민 간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아산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김성림 이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일 자리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직업 훈련을 다양화하고 직무 배치도 고려하는 등 노력을 소개했다. 서천맛집☆여행밴드 흥선희 대표는 SNS로 맛집을 소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부여 여성농민회는 생명이 담긴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 (2회)



1월 20일(화) 예산 숲향기와 8월 18일(화) 동학사 여정에서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에서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언론인들과의 만남이었으며 간담회를 통해 향후 지역 언론인들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기대된다.

시·군 여성정책부서와의 간담회



3월 30일(월) 본 원 세미나실에서 시·군 여성가족 정책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군 여성가족 정책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는 본원의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각 시·군 차원의 여성정책 특화사업을 공유하면서 아울러 본원과 연계·협력 가능사항에 대한 제언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로 각 시·군의 정책담당자 17명과 본원 원장 및 연구원 등 총 29명이 참석하였다.

정책협의체 운영



3월 11일(수) 4월 21일(화) 충남도청에서 보건보건국,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정책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었다. 정책협의체는 2015년 정책과제 및 충남 도 제안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본 원의 제안과 충남도의 제안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향후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대외교류협력

[CWPDJ 포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한·중포럼 연길시에서 개최



5월 7일(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서 본원과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의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한중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한중포럼에서는 양국의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여성의 역할 및 지방정부 여성친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사실상 조선족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 속에서 이번 연변조선족자치

주 부녀연합회와의 교류사업은 향후 양국 교류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한국측은 본원 원장 및 연구원 3명, 중국측은 연변주 부녀연합회 주석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 공통의 현안과 관심사를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여성지도자 연수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와 MOU 체결을 맺은 이래 공동 포럼, 교육사업, 공동연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으며, 2015년 5월에는 “한-중 여성친화적인 지방정책의 모색” 한중포럼을 개최하여 의미있는 행사였다는 현지의 평가를 받은바 있다. 이번 여성지도자 연수는 충남의 여성·가족 정책과 제도를 심도 있게 배우고 여성지도자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변 부녀연합회 측의 바람에 따라 실시되었다.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된 연수 프로그램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정책연구실장이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이해”를,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이 “여성 지도자 리더십 비전 설정: 깨어있는 여성! 마을을 바꾸다”를 주제로 강의와 워크숍을 펼쳤다. 또한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부여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관련 시설 방문과 흥성군 흥동마을 탐방 등 현장 체험 및 교육이 포함되었다.

“최근 연변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거나 집을 새로 짓는 등 마을의 외관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마을을 사람과 관계가 살아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배워갑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 또한 감명 깊은 배움이었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여성지도자 연수에 참여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허해란 부주석이 연수 소회를 밝혔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인구 약 200만 명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는 행정단위이며 자치주 소속 부녀연합회는 여성권의 보호와 지위 향상, 아동 발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이다. ‘연변주 여성아동발전기획’, ‘여성권의 핫라인(12338) 개통 운영’,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사업’, ‘여성소액대부금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 한국복지분권협의회 (회장단:충남여성정책개발원) 공동 워크숍, 심포지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에 거쳐 한국복지분권협의회 워크숍 및 심포지움이 리솜 오션캐슬에서 개최되었다. 복지주체의 지방이양이라는 복지 분권 실시 이후 구성된 본 협의회에서는 회장기관인 본 원을 포함하여 서울, 경기, 경북, 부산, 대전 등 총 6개 광역권 복지관련 회원기관 회원들 등 약 140여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노인을 주제로 하여 지역별 노인 관련 복지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원의 송미영 연구위원은 취약업 중심으로 분석한 ‘전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론주제로 발표하였다.

세미나&포럼

제2차 CWPDI포럼 ‘충남 노인돌봄인력의 통합적 지원방안 토론회’



9월 21일 「충남 노인돌봄인력의 통합적 지원방안 토론회」를 본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이미 농촌지역 시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질적인 향상은 지역의 주요 현안이다. 노인돌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노인돌봄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 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올해 본원에서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의 노인돌봄인력 실태 및 통합적 지원방안> 연구를 맡고 있는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노인돌봄기관의 운영주체별로 (영리조직/비영리조직/사회적경제조직) 노인돌봄인력에 대한 처우나 업무만족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지역격차 또한 크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주체별 지원방안 마련, 농촌지역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환경 가이드라인 마련(고용기간, 휴식시간, 업무범위 등 명시)과 가족교육 실시, 노인돌봄인력 고용 처리 통로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노인돌봄인력의 고용불안정 문제, 낮은 교통지원금, 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 미비 등 구체적인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돌봄기관 운영모델 가능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안정선 원장은 “노인을 돌보는 일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이는 현재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두를 위한 중요한 일”이라면서 노인돌봄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김병만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팀장, 김중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하정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장기요양팀장, 정금숙 당진돌봄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정은희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6월 24일 본원의 개원 16주년을 기념하여 “상속 여성일터로서 사회적경제!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 김종남 부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본원 안수영 연구위원과 서울시 도봉구 사회적경제지원단 김연순 단장이 발제자로, 충남도 경제정책과 오세운 팀장,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김민숙 총괄팀장,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효희 상무이사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질적인 여성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젠더 관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정책적 지향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허승욱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자, 사회적경제 영역 활동 여성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충청남도 제 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11월 2일(월) 오후 2시 ‘충청남도 제 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지역 농촌 현실과 여성 농어업인의 욕구를 반영한 제 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되었다.

여성농업인정책의 정책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영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심후석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농업복지인력팀장, 박종숙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김미자 전국여성농민회 부여지부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성 농업인이 전문직업인으로 일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농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제 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충남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우리 지역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
- 도, 시·군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공무원 대상 성인지예산 교육
-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교육



2015년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워크숍



본원에서는 충청남도 및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3월 13일(화)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충남도본청 및 시·군, 세종특별자치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컨설팅할 18명의 컨설턴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 및 개정된 지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컨설턴트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충남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문적인 컨설팅 및 교육, 포럼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충남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 젠더전문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군 순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4월 28일(화) 아산시를 시작으로 논산시, 충남도청,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예산군, 서산시, 서천군 등을 거쳐 6월 19일 당진시를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군순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끝마쳤다.

교육내용은 정책 대상자의 성별특성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입각한 사업수행과 정책 속에서의 젠더 이슈를 찾아내기 위한 성인지적 관점 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필요성, 다양한 정책분야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모듈별로 정책 속에서 젠더이슈를 찾아내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해보는 참여형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등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추진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15년 과제선정 및 개선안 발굴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하반기 기관교육에서는 대상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업무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지자체별 개선안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충남 성 주류화 포럼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략화 방안 모색



7월 29일, 본원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주관하는 「2015년 충남 성 주류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략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충남지역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체감형 정책개선 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충청남도과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 지역 정책연구자, 여성·시민단체, 타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전략 사례 공유와 함께 향후 충청남도 및 각 시·군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전략 방안에 대해 분임토론 및 전체토론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지역내 젠더전문가와 여성·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도 분청 및 15개 시·군과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컨설팅, 자문, 교육, 우수정책개선사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9월부터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대면컨설팅'과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제4차 CWPDI 포럼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12월 7일 대강당에서 도, 시·군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여성·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임우연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과 한서대학교 최일성 교수, 중부대 신희정교수, 대구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지혜센터장,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강전희 운영위원, 논산 YWCA 박수정 사무총장,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김기준 여성정책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 센터장은 "그동안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증가는 놀랄만한 성과"라며 "하지만, 분석평가를 통해 제안한 개선안들을 실제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는 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컨설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역량 있는 젠더전문가 발굴·양성과 공무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그리고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구성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개선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입이 모아졌다. 김 의원은 “향후 분석평가를 통해 제시된 정책개선 과제가 반드시 실질적인 환류로 이어져 충남의 성평등 실현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대상과제선정, 성과점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정선 원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역의 젠더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충남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라며, “포럼을 통해서 도정의 성평등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향후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성인지 교육



9월16일(수) 천안 NGO센터에서 시민단체 대표 및 상근 활동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성주류화 전략 및 성평등정책 등의 이해를 위한 '2015 시민단체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는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김희경 상임대표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성인지적 관점 함양을 위하여 '충남시민단체의 성인지적 Vision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사회복지기관 성인지교육



10월22일(목) 본원 세미나실에서 충남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재완)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2015 사회복지기관 성인지교육'을 실시했다. 협약은 성평등 정책과 복지분야 연구 및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충남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



10월 28일(수) 본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예산부서 담당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해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연계, 성인지예산서 작성법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충남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 맞추어 사업분야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사례로 성평등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성인지예산서작성을 위한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CWPDI Annual Report 2015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우리 충남여성들이 성평등에 기초한
행복한 복지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교육 및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충청남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1999년에 설립한 지방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비전 · 목표 Vision & Goal

미션 Mission **성평등 충남, 행복한 여성**

비전 Vision **성평등 지역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충남의 정책 연구 · 교육기관**

전략 Strategy

- 지역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 교육기관
- 지역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 교육기관
- 내실있는 경영으로 탄탄한 연구 · 교육기관

목표 Purpose

- 성평등 도정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수행
-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 내부 역량강화 · 고객중심 책임경영 강화



정책개발

젠더관점에 기초한
여성 · 복지 · 다문화관련
정책개발

교육

여성인력개발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인지력 강화

교류협력

도시 · 군 파트너십 구축
민간참여 정책 간담회 국내 · 외 연구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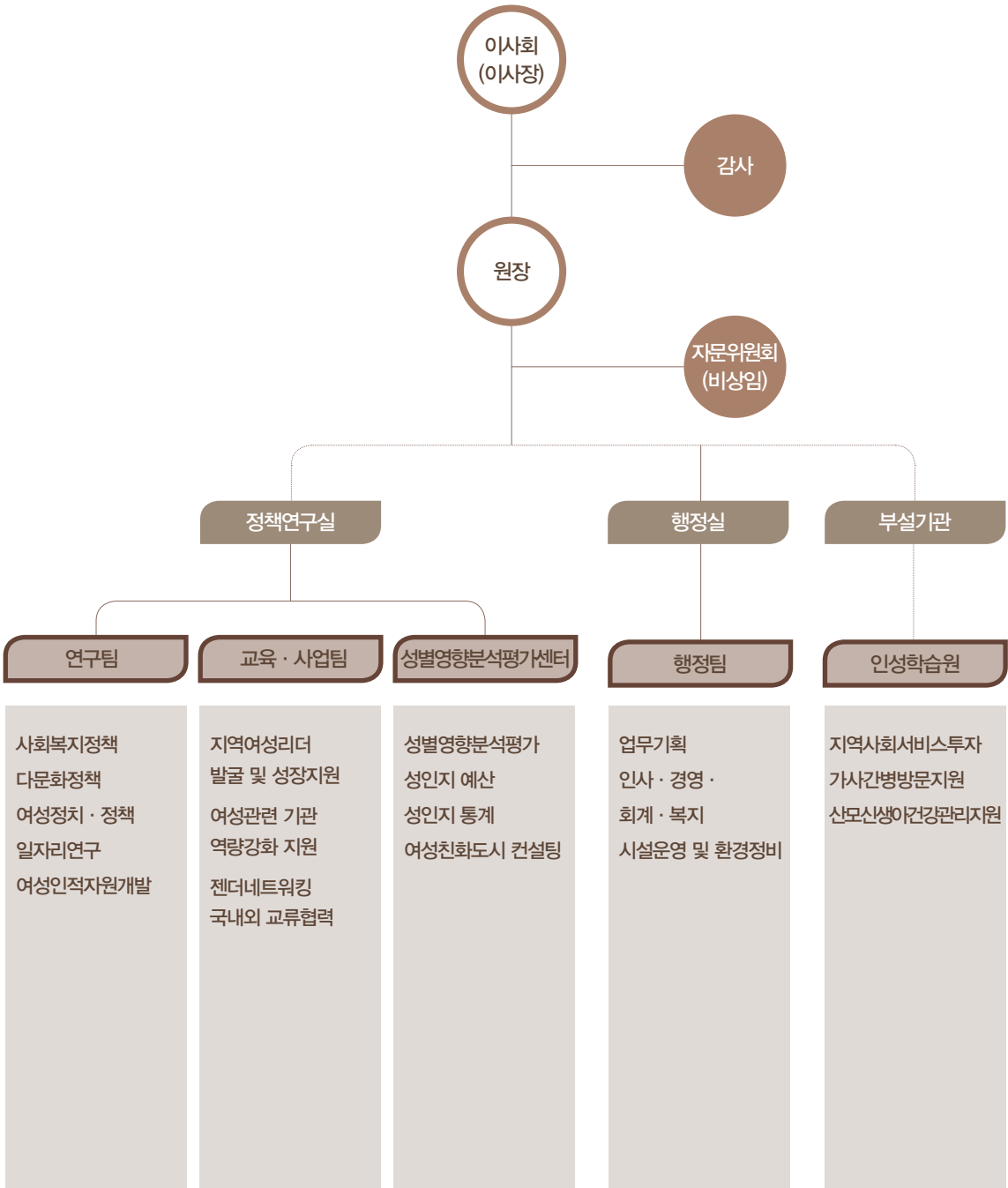
성평등 충남, 행복한 여성

연혁 History

- 2015 _ 05. 10 • 여성부 성별영향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 재지정
- 2014 _ 01. 08 • 공주시 상담원 교육시설 신고
- 05. 07 • 공주시 가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2013 _ 04. 26 • 제7대 송석두 이사장 취임
- 10. 01 • 제6대 안정선 원장 취임
- 2012 _ 08. 23 • 충청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 · 운영
- 2010 _ 08. 06 • 제6대 구분총 이사장 취임
- 09. 01 • 제5대 민경자 원장 취임
- 2009 _ 03. 19 • 제5대 이인화 이사장 취임
- 09. 19 • 제6대 구분총 이사장 취임
- 2008 _ 05. 13 • 여성부 성별영향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
- 2007 _ 03. 29 • 제4대 김경숙 원장 취임
- 06. 21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설치 · 운영
- 07. 20 • 제3대 최민호 이사장 취임
- 2006 _ 02. 13 •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설치 · 운영
- 2004 _ 06. 24 • 제2대 유덕준 이사장 취임
- 2003 _ 11. 25 •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설치 · 운영
- 2002 _ 06. 18 • 지식 · 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 신고
- 12. 20 • 충청남도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 운영
- 2000 _ 03. 23 • 제2대 박상돈 원장 취임
- 08. 09 • 제3대 이재우 원장 취임
- 1999 _ 02. 20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공포
- 06. 24 • 법인설립 허가 및 제1대 조남계 이사장 취임
- 07. 06 • 개원 및 김화중 원장 취임
- 1998 _ 08. 22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 및 업무



CWPDI 사업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가족·다문화·사회복지 분야의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및
교육·사업 운영을 통하여
성평등 관점이 통합된 충청남도 도정의
추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연구”

여성/가족분야 연구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 여성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성의 현실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과제를 수행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갑니다.

정책연구 01	여성·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복지 시책 개발	현안연구 01
정책연구 02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여성가족정책 및 성인지 정책의 실천전 개입 및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한 현안과제	현안연구 02

사회복지분야 연구

영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필요한 정책 연구와 사회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집단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모두를 배려하는 복지사회 충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01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조사 및 정책개발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복지 시책 개발	현안연구 01
정책연구 02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복지정책의 실천적 개입 및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한 현안과제	현안연구 02

다문화분야 연구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충남도내 이주민의 인권 증진,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와 다문화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한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수행 하여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도민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충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01	다문화가족 및 자녀,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민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정책개발	충청남도 및 시·군의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여성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현안연구 01
정책연구 02	'다문화' 관점의 확산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신속한 정책반영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시급히 요구되는 다문화 관련 현황 및 요구조사 시책개발과 현안과제수행	현안연구 02

2015년 연구 리스트

[기본연구과제]

과제명	연구자
충남 이주민통합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전략과제)	우복남, 장철원
충남의 노인 돌봄 인력 실태 및 통합적 지원 방안 (전략과제)	송미영, 김희경
성인지 관점에서의 충남 주민자치회 참여 실태 및 개선방안	안수영, 김종남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인식 및 생활실태 조사	김종철, 정숙정
충청남도 장애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최은희
충남 여성 빈곤층의 자활기업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안수영
충남 6차산업의 여성참여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김종철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연구 -충청남도 사업을 중심으로-	임우연, 이경하

[정책과제]

과제명	연구자
충청남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2014년 의원발의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임우연
충남 시·군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분석	김영주
다문화가정 초등학령기 아동 사회성·정서 측정 조사지 개발	우복남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기능 재정립 방안	송미영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집	임우연
충남 농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활성화 방안	태희원
충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방안	조윤진
충청남도 예비부부 특화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최은희
충남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양성사업 개선방안	우복남
이주민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안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채민
충남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방안	송미영
충청남도 장애인 인권수준 측정 기준마련 연구	최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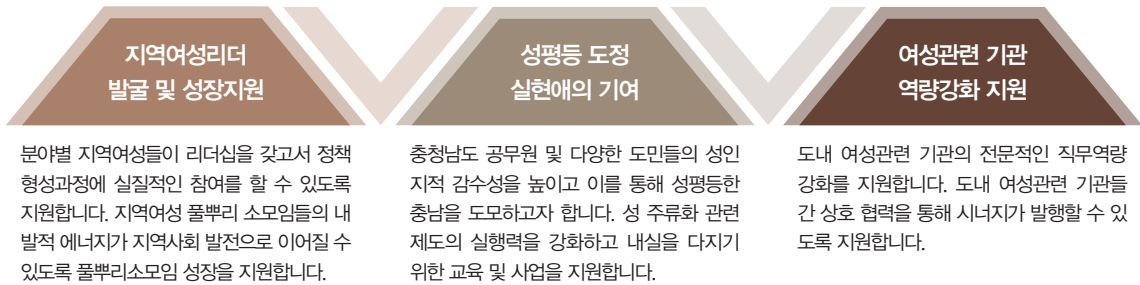


[교육 · 사업]

“지역의 여성 일꾼을 키우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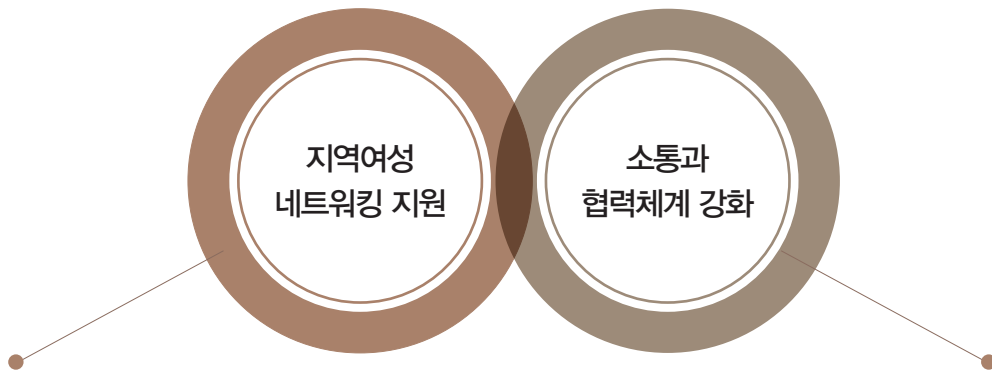
교육 · 워크숍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하여 충남 지역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다양한 집단의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젠더 네트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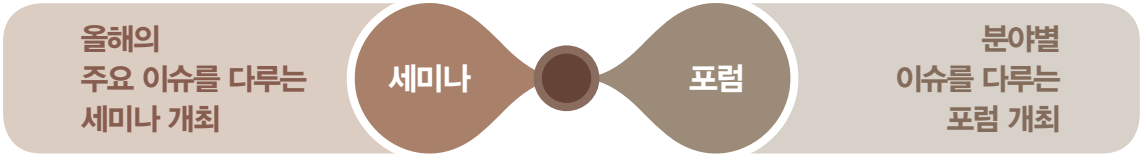
도내 지역여성 풀뿌리 모임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이들의 내발적인 에너지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또한 도내 지역여성, 공무원, 유관기관, 언론 등과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민의 살아있는 의견을 환류시키고 본원의 연구와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 지역여성 풀뿌리소모임 발굴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시군순회 간담회 및 홈커밍데이 실시
- 본원의 연구 및 교육사업의 의견 수렴과 성과 확산을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
- 지역여성 풀뿌리소모임의 사업수행 능력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과 조직운영 역량 강화를 컨설팅 사업 실시

세미나&포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정책형성과정에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충남도민의 삶과 욕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어젠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긍정적 비판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학술연구 정보 및 인프라를 공유하여 본원의 내부 역량 및 대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사업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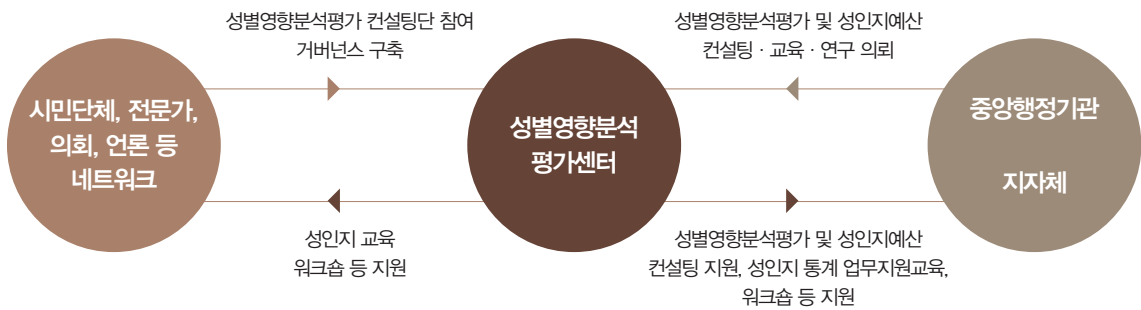
구분	분야	교육·사업명	시기(월)	장소(지역)	참여자 수	비고	
교육 및 워크숍	지역여성리더 교육	여성농업인리더 양성교육	8	본원	28		
		차세대여성리더 양성교육	10	본원	26		
		여성장애인리더 양성교육	7	아산	16		
		이주여성리더 양성교육	12	아산	28		
		여성단체리더 양성교육	12	홍성	32		
	관련기관 및 실무인력 역량강화	여성인력개발 관리자 워크숍	4	아산	25		
		여성인력개발 종사자 워크숍	4	아산	22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5~6	본원	34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11	본원	23		
		지방자치 참여	여성풀뿌리자치학교	7~8	본원	35	
내부역량강화	연구원 워크숍/콜로키움	5, 12	본원	25	5회		
	언론과의 워크숍	9, 10	예산, 공주	23	2		
세미나 및 포럼	CWPD 세미나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	6	본원	100		
	정책포럼	여성가족정책 포럼	10	도청	30		
		복지&젠더 포럼	4	도청	170		
센터네트워킹	풀뿌리소모임 발굴·지원 및 네트워킹	다문화정책 포럼	11	본원	25		
		여성 풀뿌리 조직 운영 컨설팅	12	본원	20		
		여성풀뿌리소모임성장 프로젝트	6~10	청양, 서산, 부여, 서천	350	4개 단체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지역 여성 소모임 간담회	6~11	공주, 홍성, 아산, 당진, 예산, 서천	116	6회	
		충남 풀뿌리여성대회	3	본원	150		
		여성의원 연찬회	8	본원	22		
	수탁교육	역량강화	시군여성정책부서 간담회	3	본원	-	
			언론 간담회	4, 8	공주	20	2회
			한분협 공동사업	9	대전	-	
	대외협력	업무협약	여성인재 아카데미(양평원)	9	본원	87	3회
여성인재 아카데미(도보조금)			10	홍성	26		
사회복지공무원 힐링과정			10	공주	26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10	-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4	-	-		
		충남도립청양대학	2	-	-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2008년 5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 수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교육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2011.9.15.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현재 전국 광역단위 17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로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넓게 형성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분석평가서 작성을 통해 해당 업무의 성별 불평등과 차별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례나 지침상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관련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유도는 물론 성별로 각기 다를 수 있는 정책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性)이 참여와 정책 수혜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도

[사업내용]

| 컨설팅 |

- 충청남도 및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 충청남도 및 시군 성인지예 · 결산서 작성 컨설팅

|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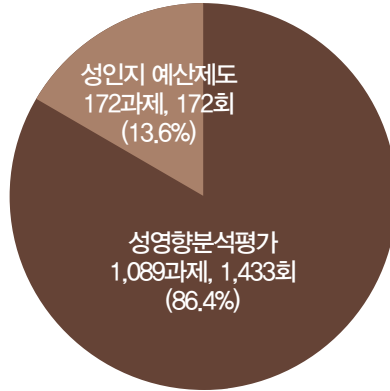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
-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성인지 교육
- 컨설턴트 양성교육

| 연구 |

- 주요 정책의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 성인지통계 발간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굴

[2015년 컨설팅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1,089건, 성인지예산 172건으로 전체 1,261건 1,60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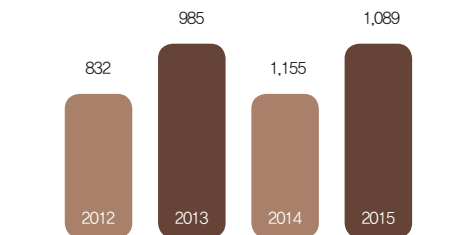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지원 실적(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단위 : 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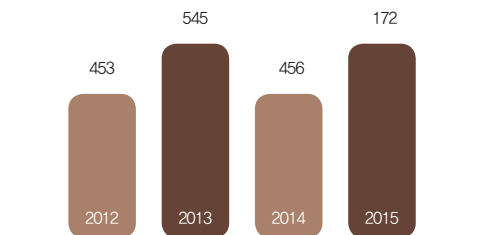
구분	컨설팅 부문별 지원					컨설팅 방법별 지원		
	대상구분 (대상과제수)	합계 (회)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검토의견	기타 (종합분석 보고서 검토 등)	대면	서면 (GIS시스템, 메일, 전화 등)
전체	1,089	1,433	39	844	548	2	239	1,194
법령	465	470	1	22	447	0	0	470
계획	2	5	0	5	0	0	1	4
사업	607	919	4	814	101	0	223	696
총괄	15	39	34	3	0	2	15	24

(단위 :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2012-2015)

(단위 : 개, %)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현황(2012-2015)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나누는 마음, 표현하는 감성, 창의적 사고”를 가진 충남인재 양성

설립목적

충청남도 어린이들에게 자연친화적 환경과 체험학습활동으로 올바른 인성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인성교육기관입니다.

주요사업

- 유아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충남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위해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유아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으로 보육현장을 지원합니다.

교육운영 목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생명존중
자연생태교육

전통문화
가치교육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교육



교육프로그램

월별	교육명	교육내용	운영시기	누리과정연계
3	봄색깔놀이터	색깔을 주제로 하는 인성교육 - 1일체험정원:80명	03.29 ~ 04.08	예술경험영역 -환경과 생활
4	나도 할 수 있어요	장애전문어린이집 교육	04.19 ~ 04.22	사회관계영역 -나와 가족
	감성 톡톡 인성공작소	감성발달을 돕는 다양한 인성교육체험	04.12 ~ 04.15 04.26 ~ 05.06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역 -봄
5	창의 속속 인성공작소	창의력 사고를 돕는 다양한 인성교육체험	05.10 ~ 05.27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역 -봄
6	소중한 나 · 소중한 너	생명존중 중심의 유아성교육 - 1일체험정원:80명	05.31 ~ 06.03	사회관계영역 -나와 가족
	흙으로 만드는 세상	흙을 주제로 한 감각놀이터 - 1일체험정원:120명 내외	06.09 ~ 06.29	예술경험영역 신체운동영역 -환경과 생활
7	여름하루캠프	여름을 주제로 한 신나는 여름캠프(1일체험정원:80명)	07.08 ~ 07.21	자연탐구영역 사회관계영역
8	여름색깔놀이터	색깔을 주제로 하는 인성교육 - 1일 체험정원:100명	08.18 ~ 09.02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역 -여름
9	작은 상상마당	소규모 어린이집대상 교육 ※교육대상 유아 15명 내외 기관에 한함	09.06 ~ 09.09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역 -가을
	관계 쑥쑥 인성공작소	사회성 발달을 돕는 다양한 인성교육체험	09.20 ~ 10.07	사회관계영역 예술경험영역 -가을
10	배려 풍풍 인성공작소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다양한 인성교육체험	10.11 ~ 10.28	사회관계영역 자연탐구영역 -가을
11	옛날 옛적에	전통문화의 맛과 멋, 흥이 있는 체험한마당	11.01 ~ 11.11	사회관계영역 예술경험영역 -우리나라

이용대상 : 충남도내 어린이집 만3세 ~ 만5세 유아

이용방법 : 당해년도 1월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교육운영 :

교육일	교육시간	교육비
화~금	10:30~14:30	무료

찾아오는 길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학봉리 191-5)

T. 042-825-1541~2 / F. 042-825-1543 / www.insung.or.kr



CWPDI 서비스



CWPDI 홍보서비스
2015년 언론에 비친 CWPDI

CWPDI 뉴스레터

CWPDI 이모저모, 충남여성소식, 정책동향 등 CWPDI가 전하는 일간 웹진

뉴스레터 78호
2015년 1월호

2015년 신년사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해가 시작될 지 얼마 전 달이가고 있습니다. 올이년 새해 독자와 여러분이 보내는 소망과 아로미자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올이년 이학 모든 연구원과 직원들이 올이년 독자와 여러분이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충남소식

[논단]에 새해의 여운 정순 영그래

본원소식

[충남시여성인] 학번대입 "충남도지사에게 온다"



지난 1월 5일 충남도청 도지사실에서 "충남도지사에게 온다" 주제의 특별 대담이 열렸다. 이 날 대담은 본원에서 발행하는 주간 소식지 '충남시여성인' 특집으로 기획되었으며, 단행본 콘텐츠와 정기적으로 '충남시여성인' 특집과 대담의 진행자로 참여한다.

지역소식

뉴스레터 86호
2015년 9월호

계명학 이모저모

'2015 충남여성 불부러지치학교' 1기 수료생 배움



정책동향

다문화사회의 맞는 정책이란

이서 진 (충원 연구원)

1990년대에 제도 제 4차 경제 주체로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하던 다문화사회의 인구의 비중이 199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10만명을 넘어섰고, 2015년 현재 174만

CWPDI 젠더브리프

통계로 보는 여성 · 가족 · 복지 · 다문화 젠더이슈

CWPDI 젠더 브리프 제 1호
통계로 보는 여성 · 가족 · 복지 · 다문화 젠더이슈

목차

1. 통계를 통해 본 여성 · 가족 · 복지 · 다문화 젠더이슈

2. 통계를 통해 본 여성 · 가족 · 복지 · 다문화 젠더이슈

3. 통계를 통해 본 여성 · 가족 · 복지 · 다문화 젠더이슈

CWPDI 젠더 브리프 제 1호
통계로 보는 여성 · 가족 · 복지 · 다문화 젠더이슈

정치 사회 참여 분야

1. 정치 사회 참여 분야

2. 정치 사회 참여 분야

3. 정치 사회 참여 분야

CWPDI 젠더 브리프 제 1호
통계로 보는 여성 · 가족 · 복지 · 다문화 젠더이슈

복지 분야

1. 복지 분야

2. 복지 분야

3. 복지 분야

충남여성in

CWPDI의 일 년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간 소식지



정책제언집

한 해의 정책연구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구노트



홈페이지 www.cwpdi.re.kr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온라인 누리집

SNS; www.facebook.com/cwpdi

발 빠르게 전하는 실시간 정보

2015년 언론에 비친 CWPD

그 어느 해보다 활기차게 움직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 설치 필요”

도여성정책개발원 포럼
성 평등정책 점검 · 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부터 시행된 이후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도정의 성평등 현주소 점검에 나섰다.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7일 대강당에서 '충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임우연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과 한서대학교 최일성 교수, 중부대 신희정교수, 대구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지혜센터장,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강전희 운영위원, 논산YWCA 박수정 사무총장,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김기준 여성정책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 센터장은 "그동안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증가는 놀랄만한 성과"라며 "하지만 분석평가를 통해 제안한 개선안들을 실제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는 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컨설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역량 있는 젠더전문가 발굴 · 양성과 공무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그리고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구성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개선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전일보 최정 기자 2015. 12. 08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결혼이주여성 교육

지난 토요일(5일) 충청남도에 정착하여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을 이끌고 있는 리더

들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간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초기정착을 위해 주로 정서적 지지를 해왔던 자조모임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주체로 당당히 그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 1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논산시 자조모임 PLAN(Philippine Ladies Association in Nonsan)의 대표 예블린은 자조모임이 지역사회와 결혼이주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자조모임의 특성과 지향성을 살린 리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의를 맡은 정혜실 대표(TAW 네트워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과 위치성은 다른 누군가가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인식하고 균형 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게 하였다. 또한 강의를 통해 각종 지원 사업 활용 방법,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방법, 지지치 않는 리더 되기 등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팁을 제시해 주었다.

본 교육을 주관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다문화'라는 표현이 정책적 수사가 아니라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 문화 풍토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공뉴스 이경 기자 2015.12.07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농업인리더교육' 실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1일 부여 고도문화센터에서 '여성농업인리더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농촌사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여성핵심리더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의 이길성 회장은 '시대흐름의 변화와 여성농민의

삶' 강의에서 "농촌의 미래는 여성농업인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있다"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임원정규 사무국장은 '여성의 눈으로 보는 농업정책'에서 "미래 산업구조에서 여성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고 농촌사회에서도 이런 여성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농업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2015.12.0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플뿌리 조직 운영 컨설팅 개최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플뿌리소모임을 위한 조직운영 컨설팅이 30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언니들과 함께 하는 여성플뿌리 조직운영 컨설팅'을 테마로 진행됐다. 여성단체 인큐베이팅 선정모임인 사산플뿌리 여성연대,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 즐거운서천을꿈꾸는여성연대, 부여군토종종자지킴이 회원들과 관심을 가진 도내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모임 결성과 이슈 발굴, 사업 기획, 조직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점에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정선 원장은 "여성 플뿌리 소모임 활동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좋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문제해결 시도이자 사회참여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 여성들이 소진되지 않고 '신나게' 마음살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16년도에도 여성 플뿌리 선진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2015.11.3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성평등 패러다임 접목해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정책연구실장, 기본계획 마련 대토론회에서 주장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제4차 5개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 중인 가운데 성평등 패러다임 접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 농업정책이 성주류화 패러다임과 거의 연계되지 않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제언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 김영주 정책연구실장은 2일 충남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도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도는 현재 지역 농촌 현실과 여성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도내 여성 농업인 단체와 여성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 마련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충남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 4차 기본계획은 농업정책 전반에 성평등 패러다임을 접목하고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안정선 원장은 "여성 농업인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정책 형성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이 고령의 영세농업인, 귀농·귀촌한 젊은 여성, 이주여성 등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 자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여성농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여성농업인정책의 정책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영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심후석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농업복지인력팀장, 박중숙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김미자 전국여성농민회 부여성부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2015.11.0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5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

충청남도의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를 높이고자 마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지난 28일 세미나실에서 '2015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남도를 비롯해 15개 시·군 예산부서 담당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해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김희경 대표는 이어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에 의하면, 충남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성평등 중하위권, 2012년과 2013년에는 성평등 하위지역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성평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은 환영사에서 "성평등 정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연계되어 실제로 예산의 변화를 가져올 때 완결될 수 있다"며, "충남도 및 시·군 예산담당부서의 성인지예산 교육 및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앙승용 기자 2015.10.29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충남 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결과 보고회 개최

"이번 공모사업이 청양에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무언가 공리를 해 나갈 수 있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최종 결과보고를 했지만 저희에게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성들과 함께 '두박이 걷기 여행'을 기획하고 있고 두 번째 '팜파티'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 이민주 회원이 <충남 여성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한 말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올해 5월 지역 여성 소모임을 육성하고자 <충남 여성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를 시작, 10월 27일(화) 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각 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공모사업에는 <청양 행복여성네트워크>, <서산 풀뿌리여성연대>, <즐거운 서천을 꿈꾸는 여성연대>, <부여군 토종종자지킴이> 등 네 모임이 참여했다.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여성들이 '공동 기획자가 되어 지역 이슈와 자원을 탐색하고 작지만 해결점을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의 작업들을 모색하고 기획하고 실행해나가면서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2015.10.27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5 사회복지기관 성인지교육'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성인지역 향상으로 업무역량 강화 기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2일 세미나실에서 도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2015사회복지기관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성별·연령별·신체적 특성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 및 실행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기관 종사자의 성인지역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성별특성에 따른 경험과 요구의 차이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성인지 감수성 훈련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형평성에 대한 이해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내용을 토대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별 또는 서비스 분야별로 젠더이슈를 찾아보는 모듬별 토론회와 발표가 진행됐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2015.10.2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노인돌봄인력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충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이미 농촌지역 시군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질적인 향상은 지역의 주요 현안이다. 노인돌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노인돌봄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21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 주최 '충남 노인돌봄인력 처우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2015년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의 노인돌봄인력 실태 및 통합적 지원방안'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책임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노인돌봄인력은 약 1만 5천여명이며 대부분이 중·고령층 여성인데 실태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가 열악한 편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노인돌봄인력의 고용불안정 문제, 낮은 교통지원금, 휴일·야간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미비 등 구체적인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돌봄기관 운영모델 가능성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병만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팀장, 김종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하정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장기요양팀장, 정금숙 당진돌봄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정은희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일요신문 김정호 기자 2015.09.2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5 시민단체 성인지 교육' 실시

'성평등 충남' 위한 시민단체 비전과 역할 모색 나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이 성 평등 충남을 위한 시민단체의 비전과 역할 모색에 나서, 젠더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충남시민단체의 역할이 기대된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16일 천안 NGO센터에서 충남도 시민단체 대표 및 상근 활동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성주류화 전략 및 성평등정책 등의 이해를 위한 '2015 시민단체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에산전국네트워크(KNGB) 김희경 상임대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성인지적 관점 함양을 위한 '충남시민단체의 성인지적 Vision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에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대표를 비롯해 충남시민재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아산 ymca, 논산 ymca, 천안 kyc, 천안 NGO센터 등의 대표 및 상근 활동가들이 참여,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 및 지역현안 속에서 성별 관련성과 젠더이슈를 찾아보는 분임토의와 합의를 위한 대안에 대한 발표로 진행함으로써 한층 만족스럽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2015.09.1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풀뿌리자치학교' 성료

2015년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가 도민들의 호응 속에 성료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 지방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10일 시작돼 매주 금요일 35명의 지역 여성 리더가 참여, 올해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교육에 참여했던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 양수영 대표는 "풀뿌리 자치학교를 통해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활동이 이루어져야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과 여성의 의사결정참여 확대를 위해 충남여성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자치학교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중도일보 강제일 기자 2015.09.07

충남 여성장애인 리더양성 교육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여성장애인의 젠더역량 강화 및 지역 네트워킹 기반 마련을 위한 리더쉽 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 7일(월)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젠더관점에서의 리더쉽 함양으로 여성장애인 리더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 대전장애인자립생활대학 김현영 학장은 '사랑과 일(Liebe und Arbeit)'이란 주제로 "사랑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며 나와 다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능력으로 배려와 책임감, 존중과 지식이 중요하며, 일은 인간의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용기와 가치, 의미가 있어야 한다"며 여성장애인들의 내면의 열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가치교육연구소 황금명원 대표는 '여

성장애인 긍정의 날개로 날다'라는 주제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갈등해결과 의사소통을 위한 긍정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해서 한층 힘을 실어주었다.

불교공뉴스 이경 기자 2015.09.07

충남 시군, 성평등 관점 '미흡'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평가 결과

충남 대부분의 시군이 사업과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과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센터장 임우연, 아래 충남성별평가센터)는 최근 지난해 충남지역 자치단체의 1657 과제를 대상으로 벌인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및 양성평등과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벌이는 정책이나 법령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할 수 있다.

우선 충남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법령(1112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는 금연 환경 조성 및 자원에 관한 조례와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 흡연율 성별통계 공고를 의무화하고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천안시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에서 남녀 모두에게 '이미용권(기존 남성 이발권, 여성 파마권으로 구분)으로 통합 지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산시는 '시립합창단 운영조례시행규칙(배우자 출산시 남성단원 특별휴가조항 신설)과 '외암민속마을 저자거리 운영조례(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등)에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여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여성농

업인 요구 파악),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조례(위원 선정 시 성, 연령, 직업, 거주지역 고려), 금산군의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지역 여성 방범대원 참여 유도)와 '마을택시운행 주민지원조례(운행 일시 작성 시 성별구분 통계 활용)가 각각 우수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법령 평가에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청양군 등 11개 시군은 단 한 건도 우수 사례로 선정되지 않았다.

계획(10개)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충남도의 '건축기본계획(여성 안전 강조, 여성참여 확대, 여성 건축가 육성)만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53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충남도와 공주시와 금산군,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에서 6개 자치단체에서 10개 사업만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각 자치단체는 또 충남성별평가센터의 개선 권고를 받고도 이를 잘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충남도의 경우 개선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50%에 불과하다.

충남성별평가센터 관계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공무원 대상 교육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실행의지 부족으로 안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지와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2015.08.2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 주류화 포럼' 개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략 논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9일 '2015년 충남 성 주류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주관해 '충남도 성별영향분

석평가 전략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본격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및 15개 시군 지자체는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미칠 수 있는 성차별적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2015.07.3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 풀뿌리자치학교 개강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이 '2015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를 연다. 10일부터 매주 금요일 7회차 교육과 1박 2일 워크숍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엔 41명의 교육생이 참여한다. 본 교육은 도내 각 지역 핵심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교육의 내용은 기초과정으로 참여민주주의, 성인지적 공공정책, 지방자치의 이해 과정을 포함했고, 세부과정으로 환경, 경제, 돌봄, 문화, 도시계획 등 지역 삶과 밀착된 5개 분야의 이슈 발굴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시간들로 구성돼 있다.

각 교육을 맡은 강사들의 면면을 보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본 교육에 큰 방점을 두고 있음이 실감 난다. 마지막 과정인 1박 2일 워크숍은 각 지역의 여성 리더들이 충청남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선 원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교육인만큼 준비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된다"면서 "앞으로 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역여성 리더들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교육생들을 위한 심화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2015.07.09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6주년 세미나 개최

‘삶 속 여성일터로서 사회적경제 가능한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24일 개원 16주년을 맞아 ‘삶 속 여성일터로서 사회적경제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 김종남 부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본원 안수영 연구위원과 서울시 도봉구 사회적경제지원단 김연순 단장이 발제자로, 충남도 경제정책과 오세운 팀장,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김민숙 총괄팀장,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 아산제터막이사회최협동조합 이효희 상무이사 등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세미나에 앞서 안정선 원장은 “우리의 정책은 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질적인 여성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젠더 관점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영리기업들이 갖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조직문화와 이윤과 효율성에 부차적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조직 가치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을 만든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수영 연구위원은 “도내 사회적경제 영역의 여성 참여율이 65%에 이를 정도로 높다. 사회적경제 일자리는 사람 중심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노동시장의 저임금화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그대로 유지된 채 물성적인 지원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노동가치 마케팅을 통한 구별짓기 전략, 여성의 숨은 노동 드러내기 전략, 일자리 플랫폼과의 촘촘한 네트워크 전략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도봉구 사회적경제지원단 김연순 단장 역시 “사회적경제 영역은 여성들의 강점을 살리기에 좋은 기회임에도 여성들은 기존 시장 진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성 스스로의 주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중간지원조직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효희 상무이사는 “사회적경제가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여성들의 참여가 많은 만큼 성평등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록 대표는 “돌봄센터는 근로자의 90%가 여성”이라며 “여성의 돌봄 일자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는 수기를 적용하고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기룡·민형관 기자 2015.06.24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시·군순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공무원 1000여명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정착 기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이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제도의 실질적 정착이 기대된다.

17일 개발원에 따르면 도 및 15개 시군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순회교육은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 함양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정책 대상자의 성별특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입각한 사업수행과 정책 속에서의 젠더 이슈를 찾아내기 위한 성인지적 관점 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필요성, 다양한 정책분야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 다양성관리연구소 김정인 강사는 성인지관점과 성별영

향분석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법적 근거로 시행되는 성인지정책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본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임우연 센터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의 이해라는 주제에서 “성주류화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 성인자통계 생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 진행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며 모둠별 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등 한층 질적으로 심화된 교육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계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하반기 교육은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업무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지자체별 개선안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15 시군순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4월 28일 아산시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당진시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된다.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2015.06.17

충남도 여성 풀뿌리소모임 4곳 지원

정책개발원 청양·서산·서천·부여 선정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최근 ‘충남 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4개 모임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공모사업은 도내 여성 풀뿌리소모임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18개 여성 소모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개발원은 이 가운데 청양 행복여성네트워크, 서산 풀뿌리여성연대, 즐거운 서천을 꾸꾸는 여성연대, 부여 토종종자 지키이 등 4개 모임을 각각 선정해 300만 원 한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정선 원장은 협약식에서 "여성의 삶과 일,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환경과 생태 등 다양한 이슈로 지역에서 활약하는 풀뿌리 여성들에게 늘 깊은 감명을 받는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풀뿌리여성 활동을 지역에 확산하는 계기와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강제일 기자 2015.06.08

여성을 위한 3농혁신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여성포럼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을 특화한 3농혁신 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제5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장 김홍렬 의원, 충남여성포럼 회원 및 한국여성농업인(이하 한여농) 충남연합회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청양 농업기술센터 조미숙 과장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한여농 충남연합회 박정숙 회장이 '여성농업인의 행복'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및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실장, 한여농 충남연합회 장미진 부회장, 홍성여성농업인센터 곽영란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여성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3농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3농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 등 지역과 직업, 사람을 아우른다는 의미로, 충남여성포럼은 2013년과 지난해에도 3농혁신과 관련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2015.05.27

충남 여성의원들 "여성 정책 우리가 책임지겠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의원 워크숍 개최'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 이하 충남여성개발원)이 충남도내 여성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29일 충남여성개발원 세미나실에는 도내 시군 여성의원 20여명이 모였다. 시군 여성의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의정활동력 강화와 의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워크숍이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과정과 발의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장래수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연구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이슈를 지역여성의 삶과 요구와 결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5분 발언 쓰기'와 '활용'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 여성 의원은 "지역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2015.04.30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여성정책개발원 힘 합친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명숙)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이 평생교육분야 여성 지역 리더 육성 사업을 3개년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평생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된 여성 사회재진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중

장기 계획 수립 등을 도내 여성 정책 전문 기관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도내 여성들을 위해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군에 보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김명숙 원장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은 "도내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면서 "도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공뉴스 이경 기자 2015.04.03

충남 풀뿌리여성대회 성황리에 열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9일 개발원 대강당에서 제1회 충남 풀뿌리여성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부터 각 지역 여성들이 직접 행사기획에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역 여성 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 "여성, 마을을 구하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터인 마을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여성들이 중요한 주제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예술, 농업, 학부모, 교육, 성평등,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풀뿌리 여성들 150여명이 참여했고 50여개의 활동 포스터가 전시됐다.

홍성의 문화예술단체 때깡 대표 황선미씨는 캐리커처와 마을 꾸미기 등을 통해 지역 주민 간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아산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김성림 이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직업 훈련을 다양화하고 직무 배치도 고려하는 등 노력을 소개했다.

서천맛집 여행밴드 홍선희 대표는 SNS로

맛집을 소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부어 여성농민회는 생명이 담긴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 소모임이 제작한 포스터 전시는 그저 구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여성들 간 네트워킹을 위한 매개물이기도 했다. 나와 비슷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타 지역 여성들을 만나고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갯벌을 매개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운영을 고민하는 갯벌생태모임 권경숙 대표의 흥성 논배미 학교 사례가 반가웠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싶다고 말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앞으로 연구와 교육, 사업을 통해 충남 풀뿌리 여성들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힘 쓸 예정이다.

대전투데이 이성우 기자 2015.03.09

지역사회 건강의 주역은 바로 '여성'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청양지역모임 개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이 지난달 26일 청양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청양지역 여성 풀뿌리모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각 시·군 여성 풀뿌리 모임 현황파악과 모임 간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여성정책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또 지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욕구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선 각자 소개 후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주역은 여성,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자'(정모섭 (사)아이코리아군지회장), '직장인이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청양군을 이끌어 가는 여성들 대부분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고, 또 한사람이 여러 단체의 회장 또는 회원으로

중복 활동하고 계신 것 같다. 직책, 나이에 편견 없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포함해 젊은 층의 여성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이민주, 청양군도농교류센터 사무장), '여성문제 뿐 아니라 가정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김재석,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전했다.

청양신문 이순금 기자 2015.03.02

"여성이 마을을 구하다!"

제1회 충남 풀뿌리여성대회

내달 9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

제1회 충남풀뿌리여성대회가 열린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공주시 반포면)은 3월 9일 오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여성이 마을을 구하다!' 주제로 '충남 여성 풀뿌리여성대회(후원 충남지역언론연합)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여성들과 사귀고 일내는 것에 신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행사는 이날 오후 1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례발표, 포스터 전시 및 네트워킹,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사례발표에서는 1시간 동안 '문화로 지역 주민에게 말 걸기(황선미 흥성 문화예술단체 때깎 대표), '함께 하는 일자리를 만들다(김성림 아산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SNS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홍선희 즐거운서천을 꿈꾸는 여성단체 대표), '토종씨앗을 지키는 여성들(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토종부주제) 등이 소개된다.

전시된 포스터를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터 전시는 참가자들이 각 마을단위에서 활동해 온 사진과 설명을 포스터에 전시하고 설명하는 자리다. 주된 전시 분야는 인권, 교육, 문화, 환경, 농업, 일자리, 사회참여 등이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2015.02.2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산 지역 여성 소모임 간담회 열어

풀뿌리 여성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

서산 지역 풀뿌리 여성들이 의기투합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지난 23일 오전 잠흥동 르셀 우리생활 사무실에서 '서산 지역 여성 소모임 간담회'를 열었다.

서산 지역 여성 풀뿌리 모임 간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여성리더의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어린이 책 시민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놀이하는 사람들 서산·당진지회, 서산 뿌랭이 생활협동조합, 갯벌 생태연구소 연구모임, 풀뿌리시민연대, 가족상담소, 한살림 서산 지역 모임, 미소주부독서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산 등대 모임 등에서 20여 명의 여성이 참석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전체 토론을 통해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인식 부족, 모임 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한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 모임의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뜻을 실천하기 위해 서산여성풀뿌리연대(가칭)를 만장일치로 결성해 권경숙(갯벌생태교육 연구모임)씨를 회장에 김수미(한살림 서산 지역 모임), 조윤숙(서산뿌랭이생활협동조합)씨를 총무로 추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정선 원장은 "서산이 도내 7번째 모임인데 풀뿌리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에 놀랐다. 이번 모임이 흠뻑 젖어 있는 자생적 여성모임을 결속하는 계기가 돼 여성은 물론, 남성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마이뉴스 방관식 기자 2015.02.24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담당자 및 관리자 워크숍'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경력단절여성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지난 6일 충남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담당자와 시군 여성 일자리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충남도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활성화할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별 현황 DB 구축과 각 센터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2014년 11월)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력단절여성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앞으로 도내 경력단절여성 지원 기관들의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과 취업 연계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향후 지원기관의 활동 방향으로 6차 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창업형 일자리 창출이나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농업·농촌 특화형 일자리 지원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뜻을 모았다.

뉴스천지 김지현 기자 2015.02.09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성과 보고회

여성 아동 청소년 대상... 건강 안전 일자리 주제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5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2014년도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4년도 연구과제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일자리 등을 주

로 하였으며, 도 및 시·군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행했다.

특히 충남도가 2015년을 '안전한 충남 만들기'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과 맞물려 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이 충남도의 성과로 연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제는 충남도 정책부서가 융복합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다.주무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과제별로 협력부서의 역할이 중시됐다.여성과 아동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행정과, 사회복지과 및 교육청의 협력이 요구되며, 여성 및 장애여성의 일자리와 여성농업인의 정책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가능담당관실, 농업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장애여성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과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관과의 협력이 우선시되고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해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제언 활용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도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2015.02.05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평등 충남도정을 위한 힘찬 출발

'14년 주요 연구과제 결과 및

'15년 연구 수행 계획 발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 이하 '여성정책개발원')은 '14년 동안 충남 지역의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굴한 정책들을 새로 출범한 민선6기 충남도정에 반영되도록 제안하였다.

'14년에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10건을 소개하면, 성평등 분야에서는 충청남도 민선

6기 여성?가족정책 중점과제 발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여성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정책 수혜 집단을 세분화하고 성별 간 차이와 특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이슈로 '건강 및 '일자리'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과제로는 충청남도 장애여성 생활 및 안전 실태조사, 충남 여성농업인 정책 요구 조사,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형 여성 일자리 확대방안, 충남 여성의 건강 불평등 실태 및 해소방안의 4건이다.

가족분야에서는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중 도입국자녀 현황 및 지원방안, 충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방안 2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서는 충남 아동의 정신건강 격차 실태조사, 충남 학교밖 여자청소년 지원방안 2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14년 주요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오는 2월 5일 '연구성과 보고회'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올해는 성평등한 충남도정을 향한 추진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융합적인 연구인 전략과제를 신설하는 등 도정 기여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전략과제로 충남 이주민통합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연구, 충남 돌봄인력 실태 및 통합적 관리 방안 연구 2건과 성평등 관점의 도정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충남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1건이 수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성평등 관점에서의 충남 주민자치 사업 개선방안 연구,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여성 빈곤층 자활기업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농업인의 6차산업 참여 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 충남 장애여성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지역 여성 현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투데이 이성우 기자 2015.01.19

연구

구분	과제명
기본연구	충남 청년세대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전략과제)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효과 연구
	연변조선족자치주 분거가족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충남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충청남도 결과분석
	충남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와 정책 대응 방안
	충남 여성 NGO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정책보고서	정책보고서 8건

세미나

구분	과제명
세미나 & 워크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7주년 기념세미나
	CWPDI 포럼
	성인지 역량강화 워크숍
	연구원 워크숍
	연구원 콜로키움

교육

구분	과제명
의사결정과정 여성 참여확대	여성풀뿌리 자치학교(기본)
	여성풀뿌리 자치학교(통합)
성주류화제도 실행기반 강화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기초)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심화)
	성 주류화 컨설턴트 보수교육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 역량강화 교육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단 교육
지역여성 소모임 활성화	풀뿌리 선진지 탐방
	여성단체 인큐베이팅 및 역량강화
	여성풀뿌리 조직운영 컨설팅
맞춤형 성인지 교육 확산	사회복지사 성인지교육
	시민단체활동가 성인지교육
	여대생 성인지교육
	주민자치활동가 성인지 교육
인프라구축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범운영)(정책과제)

대외협력사업

구분	과제명
젠더 네트워킹	홀 커밍데이 사업
	지역 여성소모임 등 간담회
교류협력	국내외 협약기관과의 교류협력(학술교류)
	국내외 협약기관과의 교류협력(교육·연수)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도 유관부서 정책협의체 운영
홍보	시군 여성정책부서 정책간담회
	<충남여성in> 발간
	CWPDI 젠더브리프 발간(온라인)
	정책제언집 발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뉴스레터 발간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SNS)
정책 및 사업홍보	

원장 | 안정선 (행정학 박사,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구분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실장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문화사회학	정책연구실 업무총괄 여성·가족정책, 여성인권
	최은희	선임연구위원(팀장)	사회복지학	연구팀 총괄, 사회복지정책
연구팀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교육공학	여성친화도시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언어문화학	다문화정책
	안수영	연구위원	노동사회학	일자리연구, 여성인적자원개발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등
	권수진	연구조교	-	연구지원
	태희원	연구위원(팀장)	여성학	교육·사업팀 총괄
교육·사업팀	조윤진	연구원	사회복지학	교육·연구조성사업, 교류·협력사업
	이재민	연구원	사회학	교육·연구조성사업, 교류·협력사업
	이경하	비상임연구원	사회학	성인지교육 및 연구
	허선영	연구조교	-	연구 및 교육사업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임우연	연구위원(센터장)	가족사회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친화도시, 연구·컨설팅
	박민아	전담연구원	사회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운영 및 관리, 워크샵·포럼 운영지원
	윤수진	연구조교	-	연구 및 교육사업 지원 업무

[행정실]

이름	직위(직책)	업무
김기석	행정팀장	행정팀 업무기획·검토조정, 인사, 이사회, 경영평가
김매화	행정원	일반회계 예산 결산, 자금운영, 세입세출외운영
박선미	행정원	계약, 용역사업, 복지제도, 직원교육, 홈페이지
최영락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차량 및 운전
호광자	행정원	식당운영 및 관리
이원우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소방훈련, 전산관리, 개인정보
김진순	행정원	환경관리

[인성학습원]

이름	직위(직책)	업무
이정임	인성실장	인성학습원 운영 총괄 및 교육
조봉순	지도교사	교육, 회계·행정검정
서현숙	지도교사	숲생태 기획 및 교육
전소영	지도교사	창작예술 기획 및 교육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에 기초한 행복한 복지사회구현',
'다름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우리 충남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충남인 여성in

Vol. 34